

碩士學位論文

영어의 NP-이동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高 泰 洪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文 銀 淑

2001年 8月

英語의 NP-移動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泰 洪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4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文 銀 淑



文銀淑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1年 7月 日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영어의 NP-이동에 관한 연구*

문 은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고 태 홍

본 논문은 영어에 빈번히 등장하는 NP-이동 요소에 관한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어에서 NP-이동이 일어나는 구문들을 살펴보고, 비문이나 어색한 문장까지 만들어 내는 생성문법의 지나친 문장 생성력을 제어하기 위해 제시된 제약 조건들을 고찰하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NP-이동이 적용되는 상승구문, 수동구문, 능격구문, 중립구문을 검토하고, 이들 구문에서 NP-이동을 설정해야 하는 근거를 통사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살펴보았다. 상승구문에서의 NP-이동을 지지하는 근거를 재귀사 해석과 일치 현상, 관용구 표현에서 제시하였고, 수동구문에서의 NP-이동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하위범주화, 관용구 표현, 선택 제약 등과 연관해 제시하였다. 그러나, D-구조의 주어위치에 공명사구(NP-e)를 설정해서 NP-이동 현상을 설명한 능격구문과 중립구문은 원거리 이동의 예가 없기 때문에 상승구문이나 수동구문의 경우처럼 강한 설득력을 지니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NP-이동은 '각 논항은 하나의 의미역만 받으며, 각 의미역은 하나의 논항에만 할당된다'는 의미역 기준(θ -Criterion)과 '모든 음성적 내용을 지닌 명사구는 격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격여과 장치(Case Filter)를 충족하기 위해, 의미역 위치에서 비의미역 위치로, 동시에 격(case)이 없는 논항위치에서 격이 있는 논항위치로 의무적으로 이동하는 규칙임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NP-이동 과정에서 NP가 원래 있던 위치에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임.

동지표(coindex) 되는 흔적(trace)을 남기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NP-이동시에 ‘시제가 있는 절 안의 요소는 그 어떤 규칙에 의해서도 그 절 밖의 요소와 연관될 수 없다’는 시제문 조건, ‘NP나 S 내에 명시주어가 있을 때 명시주어 이외의 그 어떤 요소도 이 NP나 S 밖의 요소와 연관될 수 없다’는 명시주어 조건, ‘그 어떤 구성소도 한 번의 이동규칙의 적용으로 둘 이상의 NP 또는 S 경계를 넘어 이동할 수 없다’는 하위인접 조건, ‘a가 시제의 영역이나 주어의 영역 내에 있는 조응소이면 a는 시제 또는 주어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NP 또는 S’ 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투명 조건, 하위인접 조건의 한계절점인 NP와 S를 장벽이라는 개념으로 수정해 이동 구문을 설명하는 장벽이론, ‘대명사가 아닌 공범주는 고유지배되어야 한다’는 공범주 원리 등의 제약이 뒤따르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들을 최근 대두된 최소이론에서는 ‘경제원리’라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기존의 초인상, 의미역 기준, 격이론, 시제문 조건, 명시주어 조건 등으로 설명하던 NP-이동 현상을 최단 연결 원리, 최소 단계 원리, 이기성 원리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뿐만 아니라, Baltin(1995)이 제시한 VP-내부 주어 가설을 통해 이동 현상을 보다 설득력 있게 분석할 수 있었다.



목 차

I. 서론	1
II. NP-이동 규칙 적용구문	4
1. 상승구문에서의 NP-이동	4
1) NP-이동의 이론적 설정근거	6
a) 재귀사 해석	6
b) 일치 현상	7
c) 관용구 표현	8
2. 수동구문에서의 NP-이동	9
1) NP-이동의 이론적 설정근거	10
a) 하위범주화	10
b) 관용구 표현	11
c) 선택 제약	12
3. 능격구문과 중립구문에서의 NP-이동	13
1) 능격구문과 NP-이동	13
2) 중립구문과 NP-이동	15
III. 논항의 의미역과 격배정	17
1. 의미역과 NP-이동	17
2. 격배정과 NP-이동	20
IV. NP-이동과 제약	25
1. 시제문 조건	27
2. 명시주어 조건	28
3. 하위인접 조건	29
4. 불투명 조건	32
5. 장벽이론	35

V. 최근 NP-이동 연구 경향	40
1. Chomsky(1993, 1994)의 연구	40
2. Baltin(1995)의 연구	47
1) VP-내부 주어 가설	47
① 통사론적 근거	48
② 의미론적 근거	57
2) 상승구문에서의 A-이동	60
3) 수동구문에서의 A-이동	63
VI. 결론	70
참고문헌	72
<Abstract>	75



I. 서론

NP-이동은 논항위치(A-position)에서 논항위치로 이동하는 모든 이동을 총칭한다. 이 NP-이동은 수동구문과 상승구문을 도출할 때 적용되는 규칙으로서 격(case)이 없는 논항위치에서 격이 있는 논항위치로 이동하고, NP-이동으로 생겨난 흔적 t는 공범주 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를 준수해야 한다. 상승과 수동화는 하나의 논항이동 조작의 두 가지 다른 형태로서, 논항(argument)은 주어(subject)나 보충어(complement) 위치에서 더 높은 주어위치로 이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항이동 조작은 여러 가지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원리의 제약을 받는데, 이 보편문법 원리에는 결속을 위한 성분통어 조건, 최단 이동 원리, 의미역 기준, 이기성 원리 등이 포함된다.

지배결속이론(Government-Binding Theory: 이하 GB이론이라 약함) 이전에는 NP-이동, 즉 명사구 이동 현상을 여러 변형 규칙들을 설정하여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수동화를 NP-전치, NP-후치, be 삽입, -en 삽입, by 삽입과 같은 여러 가지 규칙이 적용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고, 또 각 규칙별로 그 규칙이 적용 가능한 상황을 명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GB이론에서는 이러한 각종 규칙들을 ‘어떤 구성요소든 어디로나 이동하라(Move any category anywhere)’는 α -이동(Move- α) 하나로 줄이고, 그 대신 α -이동으로 생기는 과잉생성(overgeneration)을 각종 원리들로 여과시키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α -이동의 한 유형인 NP-이동 현상을 GB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 ‘NP-이동 규칙 적용구문’에서는 상승구문(raising structures), 수동구문(passive structures), 능격구문

(ergative structures)과 중립구문(middle structures)을 중심으로 NP-이동 규칙을 설정해야하는 근거를 통사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인 면에서 고찰하게 된다. 제Ⅲ장 ‘논항의 의미역과 격배정’에서는 ‘어떤 요소가 의미역 표시(θ -marking)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이 있어야 한다’는 가시 조건(visibility condition)¹⁾에 따라 논항 NP가 격이 없는 의미역 위치(θ -position)에서 격이 있는 비의미역 위치($\bar{\theta}$ -position)로 이동하게 됨을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NP가 원래 있던 위치에 동지표(coindex) 되는 흔적(trace)을 남기고, 이 흔적과 이동된 요소 사이에 하나의 연쇄(chain) 현상이 생기게 되며, 이들 연쇄는 단 하나의 의미역(θ -role)과 단 하나의 격만을 할당받게 됨을 지적하게 된다. 이어서 제Ⅳ장 ‘NP-이동과 제약’에서는 NP-이동시에 뒤따르는 여러 제약들(constraints)을 상승구문과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며, 제Ⅴ장 ‘최근 NP-이동 연구 경향’에서는 Chomsky(1993, 1994)와 Baltin(1995)의 최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NP-이동 현상을 다루게 된다. 초기 Chomsky(1981a)의 GB이론에서는 동사의 외재 논항(external argument)이 INFL의 지정어(specifier)인 문장의 주어위치에 기저 생성된다고 보았지만, 동사구-내부 주어 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에 의하면 문장의 주어가 될 동사의 외재 논항인 주어는 동사구의 지정어위치에서 기저 생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허사구문, PRO, 유리양화사, 관용구 등의 위치에서 생성되어 지정어-핵(specifier-head) 관계에서 격점검을 받기 위하여 상위 지정어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 Chomsky(1993)는 GB이론의 여러 가지 원리와 가설을 경제원리라는 하나의 대원리로 통합하여 최소이론(Minimalist Program: 이하 MP이론이라 약함)을 제시하였는데, 이 MP

1) Noam Chomsky(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p.94.

이론의 경제원리로 기존의 GB이론에서 설명하는 NP-이동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NP-이동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Baltin(1995)이 제시한 VP-내부 주어 가설이 설정되어야 하는 근거를 여러 측면에서 연구하게 된다. 그리고, 제VI장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바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NP-이동 규칙 적용구문

NP-이동 규칙이 적용되는 구문으로 Chomsky(1981b)는 상승구문과 수동구문을, Burzio(1986)는 상승구문과 수동구문, 능력구문을 제시하였으며, Keyser & Roeper(1984)는 이러한 구문들에 덧붙여 중립구문을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들 구문에서의 NP-이동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겠다.

1. 상승구문에서의 NP-이동

Postal(1974)에 의하면 다음 (1)의 구조에서 S₁의 요소가 S₂의 한 위치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상승(raising)이라 하며, 이 때의 V₂를 상승동사(raising verb)라고 한다.²⁾



(1) [S₂ V₂ [S₁ V₁]].

다시 말해 상승은 어떤 구문에서 논항인 단어나 구가 하위위치에서 상위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이동이 이루어진 구문이 바로 상승구문이다.³⁾ 예를 들어, (2a), (3a)와 같은 문장이 상승구문에 해당한다.

(2) a. *John* seems to me [___ to be unhappy].

b. It seems to me [that *John* is unhappy].

2) Paul M. Postal(1974), *On Raising: One Rule of English Grammar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p.292.

3) Andrew Radford(1997), *Syntax: A minimalist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p.270.

(3) a. *He* is likely [___ to succeed].

b. It is likely [that *he* will succeed].

(2a)와 (3a)는 각각 (2b)와 (3b)로 해석된다. 따라서 (2a)와 (3a)의 주절의 주어는 원래 상승술어의 주어가 아니라 내포문인 [] 내의 비한정절의 주어였다가 NP-이동에 의해 생성된 주어인 것이다.

이러한 상승 현상은 다양한 종류의 상승술어에 의해 유발되는데, 이들 상승술어(raising predicate)에는 형용사인 about, apt, bound, certain, likely 등과 동사인 appear, seem, prove, tend 등이 있다. 다음은 Postal(1974)이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승술어들이다.⁴⁾

(4) a. There is *about* to be a fight in the kitchen.

b. There is *apt* to be cholera in Turkey.

c. There is *bound* to be a riot in Dacca.

d. There is *going* to be trouble in Indiana.

e. There is *liable* to be some trouble.

f. There is (all) *set* to be a meeting at Bob's house.

g. There *chanced* to be a deathray in his pocket.

h. There *grew* to be opposition to the foam program.

I. There *proved* to be toxins in the soap.

j. There *threatens* to be a famine in Bulgaria.

k. There *had better* not be any flaws in your argument.

4) Paul M. Postal(1974), *op.cit.*, p.293.

1) NP-이동의 이론적 설정근거

NP-이동 규칙을 문법의 체계 내에 설정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Radford(1981)는 상승구문과 수동구문에서 NP-이동의 설정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재귀대명사화(reflexivization)와 일치(agreement), 관용 명사구(idiom chunk NPs), 하위 범주화(subcategorization), 선택 제약(selection restriction)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⁵⁾

그러면 상승구문에서의 NP-이동의 이론적 설정근거를 재귀사 해석과 일치 현상, 관용구 표현에서 살펴보자.

a) 재귀사 해석

‘재귀사와 그것의 선행사는 동일한 절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절동료 조건(Clausemate Condition)⁶⁾에 따라 재귀사는 반드시 동일절 내에서 자기 자신과 동일한 성(gender), 수(number), 인칭(person)을 가지고 있는 선행 명사구(preceding NP)를 가져야 하며, 그 선행 명사구와 연관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의 예문 (5)를 보자.

(5) (a) John considers [_{IP} Fred to be too sure of himself].

(b) John seems to me [_{IP} ___ to have perjured himself].

(c) John seems to himself [_{IP} ___ to be invincible].

5) Andrew Radford(1981) :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p.180-187.

6) Andrew Radford(1981: 24) : A reflexive is construed with any expression which precedes it in the same clause which has the same number, person, and gender.

(5a)의 himself는 John이 아닌 Fred와 연관 해석된다. 이것은 ‘재귀사는 그들 자신을 포함하는 IP 내에 선행사를 가져야한다’는 절동료 조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5b)의 himself는 주절의 주어 John과 연관 해석된다. John이 D-구조에서 재귀사 himself와 동일한 IP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절동료 조건에 의거 John을 himself의 선행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5c)의 John과 himself는 D-구조에서도 동절 성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절동료 조건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절동료 조건을 좀 확대하면 이 문장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절동료 조건’을 ‘재귀사는 양립 가능한 어느 때의 동절 성분 즉, 유도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재귀사와 동일 IP 속에 포함되고, 인칭·수·성 등에서 양립 가능한 NP와 연관 해석될 수 있다’는 ‘어느 때의 절동료 조건(Sometime Clausemate Condition)⁷⁾’으로 확대하면, (5c)와 같은 구문도 설명이 가능하다. ‘어느 때의 절동료 조건’에 따라, NP-이동이 적용된 S-구조에서 동절 성분이 되기 때문에 John과 himself는 연관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b) 일치 현상

다음으로 주어와 술부의 일치 문제를 NP-이동의 관점에서 타당하게 설명해 보겠다.

(6) a. They consider [_{IP} *John to be a fool / *f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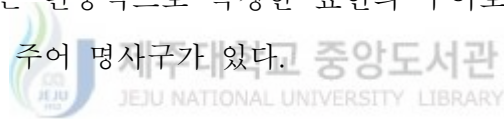
b. *They seem to me* [_{IP} ___ to be *fools / *a fool*].

7) Andrew Radford(1988: 437) : A reflexive can be construed with a compatible sometime clausemate NP(i.e. with an NP which is contained in the same S as the Reflexive at some stage of derivation, and which is compatible with it in Person, Number, Gender, etc.).

'be와 같은 연계사(copula)의 보충어로 사용된 NP는 수에 있어서 그 자신이 속해있는 절의 주어와 일치해야한다'는 일치⁸⁾ 현상에 따라, (6a)에서는 술부 명사구 a fool이 주절의 주어 they가 아닌 내포문 IP의 주어 John과 일치하고 있다. 반면, (6b)는 술부 명사구 fools가 S-구조에서 서로 다른 절 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절 주어 they와 일치한다. 즉, D-구조에서 주절의 주어 'they'는 내포문의 주어로서 술어명사구인 'fools'와 수의 일치를 이루어 내포문에서 일치 규칙을 따르고 그 후 NP-이동에 의해 주절의 주어위치로 상승되어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⁹⁾

c) 관용구 표현

마지막으로 상승구문에서의 NP-이동의 근거를 관용적 주어 명사구에서 찾아보자. 영어에는 관용적으로 특정한 표현의 주어로만 나타나도록 제한되어 있는 관용적 주어 명사구가 있다.



- (7) a. *The cat* is out of the bag.
- b. *The fur* will fly.
- c. *The shit* hit the fan.

(7)의 이탤릭체 명사구들은 일반적으로 be out of the bag, fly 및 hit the fan과 같은 표현의 주어로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적 주어 명사구들은 (8)과 같은 상승술어의 주어위치에서도 찾을 수 있다.

8) Andrew Radford(1988: 438) : A Predicate Nominal(that is, an NP used as the Complement of a copula verb like be) agrees in number with the Subject of its own Clause.

9) Peter W. Culicover(1982),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p.255-256.

- (8) a. *The cat* seems ___ to be out of the bag.
 b. *The fur* seems ___ to be flying.
 c. *The shit* seems ___ to have hit the fan.

(7)의 이탤릭체로 된 관용적 주어 명사구들이 (8)과 같은 상승구문의 주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Radford(1981)가 언급하듯이 이러한 명사구들이 D-구조에서는 관용적으로 함께 쓰이는 특정 술어들의 주어로 쓰이면서 밑줄로 표시된 위치에 있다가 NP-이동을 하였기 때문이다.¹⁰⁾

2. 수동구문에서의 NP-이동

수동(passive)은 동사의 보충어가 그 동사의 주어가 되거나 과거분사의 부정사 보충어의 주어가 과거분사를 포함하는 절의 주어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이동이 이루어진 구문을 수동구문이라 한다.¹¹⁾

- (9) a. *The car* will be put ___ in the garage.
 b. [_{NP} e] will be put [_{NP} *the car*] in the garage.



수동구문인 (9a)의 문장은 (9b)와 같은 D-구조로부터 NP *the car*가 NP-이동에 의하여 동사 앞 주어위치로 이동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탤릭체 *the car*가 ___ 부분 즉, 동사 뒤 목적어위치에서 비어있는 주어위치로 이동된 것이다.

10) Andrew Radford(1981), *op.cit.*, p.187.

11) Andrew Radford(1997), *op.cit.*, p.268.

1) NP-이동의 이론적 설정근거

그러면 수동구문에서의 NP-이동을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를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와 관용구 표현(idiom chunks), 선택 제약(selection restriction) 등과 연관시켜 살펴보자.

a) 하위범주화

- (10) a. John will put [_{NP} *the car*] [_{PP} *in the garage*].
b. *John will put [_{NP} *the car*].
c. *John will put [_{PP} *in the garage*].
d. *John will put.

먼저 하위범주화는 동사 뒤에 문맥에 의존하는 통사적 자질을 도입하는 규칙을 말한다. 예컨대 이 규칙에 의하면 동사 'put'은 위 (10a)에서처럼 반드시 그 뒤에 NP 보충어와 장소를 나타내는 PP(locative) 보충어를 취해야 한다. 즉, 동사 put은 의무적으로 NP와 PP 보충어를 하위범주화하며, (10b), (10c), (10d)는 put의 하위범주화들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비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9a)는 동사 put이 외관상 NP 보충어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D-구조에서 NP the car가 (9b)에서처럼 ___ 위치에 존재해서 하위범주화들을 만족시키고 있다가 NP-이동을 겪은 것이라 가정하면 해결된다.

b) 관용구 표현

수동구문에서의 NP-이동을 지지하는 두번째 근거를 관용적 명사구에서 찾아보자. 영어에는 (11)의 ‘*tabs*’, ‘*heed*’, ‘*homage*’, ‘*note*’, ‘*advantage*’처럼 특정 동사와 결합하여 관용적으로 쓰이는 명사구들(idiom chunk NPs)이 있다. 이러한 명사구들은 (12)의 *tabs*의 경우처럼, 함께 결합하여 쓰이는 동사에 바로 후행하는 위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위치에도 나타나지 않는 통사적 특성을 지닌다.¹²⁾

- (11) a. The government keeps *tabs* on his operations.
b. I want you to pay *heed* to what I say.
c. The Prime Minister paid *homage* to the dead.
d. She took *note* of what I said.
e. Let's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 (12) a. **Tabs* won't affect me.
b. *Everyone needs *tabs*.
c. *I don't like talking about *tabs*.

그러나, 다음 (13)의 관용적 명사구들은 특정 동사 다음에 오고 있지 않으면서도 문법적인 문장들이다.¹³⁾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2) Andrew Radford(1988), *op.cit.*, p.422-423.

13) *Ibid.*, p.423.

- (13) a. *Close tabs* were kept ___ on his operations.
 b. *Little heed* was paid ___ to what I said.
 c. *Due homage* was paid ___ to the dead.
 d. *Little note* was taken ___ of what I said.
 e. *Little advantage* was taken ___ of the situation.

그 대답은 (13)의 문두에 나타난 관용적 명사구들이 원래 D-구조에서 각각 특정 동사 뒤에 나타났다가 NP-이동에 의해 이동된 것으로 보면 쉽게 설명된다.

c) 선택 제약

마지막으로 NP-이동을 지지하는 근거를 동사가 보충어를 선택할 때에 보충어에 가하는 의미상의 제약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동사는 보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의미상의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admire’의 주어는 [+animate]의 자질을 갖는 NP가 와야하며, ‘frighten’의 목적어로는 [+animate]의 자질을 갖는 NP를 취해야만 의미상 적절한 표현이 된다. 이러한 의미상의 제약을 동사 wear가 사용된 예문 (14)를 통해 명확히 해보자.

- (14) a. Mary will wear *a revealing dress* / *!a revealing theory*.
 b. *Not many revealing dresses* / *!theories* will be worn ___ at the conference.

(14a)의 이탤릭체 표현들은 모두 명사구이다. 그러나, wear의 목적어로는 a

revealing dress만이 적절하다. 물론 이러한 선택 제약의 현상은 수동구문인 (14b)에서도 똑 같이 나타난다.

이와 비슷한 과정은 요리를 보충어로 취하는 동사 cook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15a)에서 선택 제약을 위반하고 있는 보충어 theories는 주어로 사용된 수동구문 (15b)에서도 동일한 선택 제약을 지니고 있다.

(15) a. Mary cooked *many new dishes* / *!theories* at the exhibition.

b. *Many new dishes* / *!theories* were cooked at the exhibition.

위와 같이 능동구문에서의 목적어와 수동구문에서의 주어가 동일한 선택 제약을 지니고 있는 현상은, 수동구문의 주어가 능동구문에서의 동사의 보충어위치에서 주어위치로 이동된 것이라 가정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즉, (14b)와 (15b)의 주어가 각각 wear와 cook의 보충어위치로부터 이동된 것으로 보아야 (14b)와 (15b)의 선택 제약의 위반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능격구문과 중립구문에서의 NP-이동

NP-이동은 상승구문과 수동구문 뿐만 아니라 능격구문과 중립구문에서도 적용된다.

1) 능격구문과 NP-이동

능격(ergative)이란 용어는 cause, bring about 혹은 create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동사에서 유래되었다.¹⁴⁾ 전통문법에서는 술어(predicate)가 자

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동사를 능격동사(ergative verb)라고 한다. Lyons(1981)는 change, grow, develop, open, close, start, stop, begin, break, crack, spill, tear와 같은 동사가 능격동사로 쓰인다고 하였다. 변형생성문법에서 능격동사는 하나의 논항을 택하는 동사인데, 그 논항이 논리 주어(logical subject)가 아니라 논리 목적어(logical object)이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본래 타동사의 목적어라야 할 요소가 자동사의 주어가 되었을 때, 그 자동사를 능격동사라 하며, 그러한 능격동사가 나타난 구문을 능격구문이라 부른다.¹⁵⁾ (16b), (17b), (18b)와 같은 문장들이 능격구문의 좋은 예이다.

(16) a. John moved *the stone*.

b. *The stone* moved.

(17) a. John broke *the door*.

b. *The door* broke.

(18) a. John might drown *the kittens*.

b. *The kittens* might drown.

(16)-(18)에서 타동구문의 목적어와 능격구문의 주어가 동일한 의미역과 동일한 선택 제약을 지니기 때문에, 능격구문의 표면 주어인 NP the stone, the door, the kittens가 (19)-(21)과 같이 원래 공명사구(NP-e) 주

14) John Lyons(1981), *Language and Linguis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p.352.

15) L. Burzio(1986). *Italian Syntax : A Government-Binding Approach*, Dordrecht: D. Reidel. p.125.

어를 가진 타동구문의 목적어였는데 NP-이동에 의해 비어있던 표면의 주어 위치로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 [NP e] moved the stone.
 ↑—————|
 NP-이동

(20) [NP e] broke the door.
 ↑—————|
 NP-이동

(21) [NP e] might drown *the kittens*.
 ↑—————|
 NP-이동

2) 중립구문과 NP-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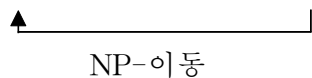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중립구문에서 NP-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적해보겠다. 중립구문은 ‘구문 자체의 형태는 능동인데 반해 뜻은 수동인 구문’을 일컫는다. 중립구문에서는 주어 NP가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해석되고 동사는 타동사로 해석되는데 흔히 *easily*나 *well* 등과 같은 양태 부사와 함께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의 (22)가 중립구문의 좋은 예이다.¹⁶⁾

16) Andrew Radford(1988), *op.cit.*, p.447.

- (22) a. *Greek* translates easily.
 b. *The baggage* transfers efficiently.
 c. *Messages* transmit rapidly by satellite.
 d. *The letters* transpose easily.
 e. *The boxes* will not transport easily.

위 (22)의 이탤릭체 명사구들은 앞에서 시사한대로 원래 동사 뒤 목적어 위치에 있다가 NP-이동에 의해 동사 앞 공명사구 주어위치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23)이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23) [_{NP} e] translates [_{NP} *Greek*] easily.



그러나, 한가지 지적할 것은 능격구문과 중립구문에서의 NP-이동 분석은 절에서 또 다른 절로 이동하는 원거리 NP-이동의 예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수동구문이나 상승구문의 경우처럼 NP-이동에 대한 강한 설득력을 갖지는 못한다.

Ⅲ. 논항의 의미역과 격배정

여기서는 Ⅱ장에서 다루지 않은 의미역과 격배정 문제를 중심으로 NP-이동 현상과 그 설정근거를 살펴보겠다.

1. 의미역과 NP-이동

의미역(θ -role)은 구성성분이 지니는 행위자(agent), 대상(theme), 목표(goal)와 같은 의미 특질(semantic feature)을 말하며, 이러한 의미역이 할당되는 표현을 논항(argument), 의미역이 할당되지 않는 표현을 비논항(non-argument)이라 한다. 논항은 지시기능(referential function)을 가진 명사구와 절을 포함하며, 비논항은 명사구가 아닌 범주와 허사(expletive)인 it과 there, 관용구에 포함된 명사구 같은 비지시적인 명사구를 포함한다.¹⁷⁾

D-구조에서 논항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를 논항위치(A-position)라 하며, 논항위치에서 논항위치로 이동하는 모든 이동을 NP-이동이라 한다. 논항위치에는 주어나 보충어 등의 문법적 기능이 주어지는데, 보충어위치에는 반드시 의미역이 부여되지만, 주어위치에는 술어의 특성에 따라 의미역이 부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eem, be likely와 같은 주어-주어 상승을 허용하는 술어의 주어위치와 수동동사의 주어위치에는 의미역이 부여되지 않는다. 여기서 의미역이 부여되는 위치를 의미역 위치(θ -position)라 하고, 의미역이 부여되지 않는 위치를 비의미역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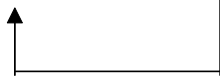
17) 고태홍(1997), "NP-이동", 「언어학연구」, 제2호, 제주: 제주언어학회, p.9.

($\bar{\theta}$ -position)라고 한다.

D-구조에서 의미역 위치는 반드시 논항으로 채워져야 하고, 의미역이 부여되지 않은 논항위치에는 (24)와 같이 음성내용이나 어떠한 자질도 없는 공범주(empty category: e)가 설정되며, 바로 이 공범주의 위치가 명사구가 이동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따라서, 명사구 이동이 가능한 위치는 의미역이 부여되지 않는 상승술어나 수동분사 등의 주어위치로 한정된다.

(24) [_{NP} e] seems [*John* to be innocent].

A위치/ $\bar{\theta}$ 위치



위와 같이 의미역 위치에서 비의미역 위치로 이동하는 명사구 이동을 다음 예문들을 통해 살펴보자.



(25) a. [_{IP} [_{NP} e] seems [_{IP} *John* to be an honest man]].

b. [_{IP} *John*_i seems [_{IP} *t*_i to be an honest man]].

(26) a. [_{IP} [_{NP} e] was [_{VP} killed *the dog* in the garden]].

b. [_{IP} *The dog*_i was [_{VP} killed *t*_i in the garden]].

(25b)와 (26b)의 D-구조인 (25a)와 (26a)에서 John과 the dog의 위치는 각각 ‘대상역(theme)’과 ‘수혜자역(patient)’이란 의미역이 부여되는 위치이다. 이에 대해서 이동할 위치 즉, 착지점(landing site)에 있는 상승동사의 주어 및 수동분사의 주어위치는 모두 의미역이 부여되지 않는 비의미역 위치이다.

이러한 특징은 ‘각 논항은 하나의 의미역만 받으며, 각 의미역은 하나의 논항에만 할당된다’는 의미역 기준(θ -Criterion)¹⁸⁾에 의해 설명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음 (27)의 seem과 같은 주어-주어 상승을 허용하는 술어의 주어위치는 비의미역 위치이다. 이 비의미역 위치에 (27a)처럼 의미역을 가질 수 없는 허사 it이 올 경우에는 적격 구조가 되지만, (27b)처럼 논항이 오면 이 논항의 의미역을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적격 구조가 된다.

(27) a. *It* seems [that Tom loves Mary].

b. **John* seems [that Tom loves Mary].

(28)과 같은 수동구문의 주어위치도 비의미역 위치이다. (28b)의 D-구조 (28a)에서 Mary와 John은 각각 hit와 by로부터 수혜자역(patient)과 행위자역(agent)이란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28a)의 문장에 비의미역 위치로의 NP-이동이 적용되어 (28b)의 S-구조가 되더라도, 흔적에 부여된 의미역을 Mary와 John이 승계하기 때문에 그 의미역에는 변화가 없다.

(28) a. [_{NP} e] was hit *Mary* by John.

b. *Mary*_i was hit *t*_i by John.

D-구조에서 논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모두 의미역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있는 요소가 이동할 경우 반드시 비의미역 위치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미역 기준을 위배하여 부적격 구조가 된다.

18) Noam Chomsky(1981a: 36) : Each argument bears one and only one θ -role, and each θ -role is assigned to one and only one argument.

그러나, (29)와 같은 부정격 구조는 의미역 기준으로 배제할 수 없다.

(29) a. *It seems [*John to love Mary*].

b. *It was believed [*John to be right*].

(29a)와 (29b)에서 주어-주어 상승술어와 수동동사는 그 주어를 의미역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위치에는 논항이 올 필요가 없으며, 내포문은 각각 seem과 believe에 의해 의미역 표시되고, John과 Mary는 각각 내포문의 동사구와 동사에 의해 의미역 표시된다. 따라서, (29)는 의미역 기준을 위배하지 않는다.¹⁹⁾ 그런데도 (29)의 두 문장이 비문법적인 것은 John이 격표시 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은 ‘모든 음성적 내용을 지닌 명사구는 격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격여과(Case Filter)²⁰⁾로 설명 가능하다.

2. 격배정과 NP-이동



이어서 격배정 문제가 어떻게 NP-이동을 설정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되는지 알아보자. 수동구문의 동사에 부착된 형태소를 수동형태소(passive morpheme)라 하는데, 영어의 수동형태소는 -en이며, 동사에 부착되어 과거분사형을 만들어낸다. 이 수동형태소는 동사가 주어에 부여하는 의미역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고, 동사의 격부여(case-assignment) 능력을 없애는 특징을 갖는다. (30a)와 같은 수동문과 그 D-구조인 (30b)를 살펴보자.

19) 김동석(1995), 「현대문법론」, 서울: 형설출판사, p.236.

20) Noam Chomsky(1981a: 49) : *NP, if NP has phonetic content and has no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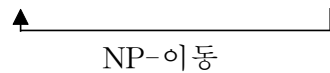
(30) a. *The window* was broken (by John).

b. [_{IP} [_{NP} e] was [_{VP} break-en *the window* (by John)]].

위 문장 (30b)의 주어위치는 비어있고, 수동형 동사는 수동형태소 때문에 목적어에 격을 부여하지 못한다. 결국 *the window*는 격을 받지 못하여 ‘모든 음성적 내용을 지닌 명사구는 격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격여과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the window*는 격을 받을 수 있는 주어위치로 의무적으로 이동해서, INFL *was*의 일치소(AGR)에 의해 주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앞에서 본 수동분사 *kept, paid, taken, worn, cooked*도 격을 부여하는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뒤에 NP가 있을 때, NP에 격을 배정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격여과를 위배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격배정을 받을 수 있는 비어있는 주어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예문 (31)을 보자.

(31) a. *Rome* was destroyed by the enemy.

b. [_{NP} e] was destroyed *Rome* by the enemy.



(31a)의 D-구조인 (31b)에서 수동분사 *destroyed*는 *Rome*에 격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Rome*은 필수적으로 NP-이동을 겪어 비어있는 주어위치로 이동하고 거기서 INFL *was*의 일치소에 의해 주격을 부여받게 된다.

다음 (32b)의 D-구조인 (32a)에서 *John*도 격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격여과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32b)처럼 주절의 주어위치로 이동하여 일치소에 의해 주격을 부여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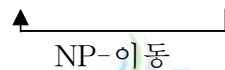
(32) a. [NP e] is believed *John* to be intelligent.

b. *John*_i is believed *t*_i to be intelligent.

격여과는 수동구문 뿐만 아니라 상승구문에서도 적용되는데, (33a)의 D-구조인 (33b)의 *John*은 내포문에 시제나 일치소가 없기 때문에 주격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주절의 *seem*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격여과 장치에 위배된다. 결국 *John*은 일치에 의해 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주절의 주어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 위치에서 주격을 부여받게 된다.

(33) a. *John* seems [___ to be sick].

b. [NP e] seems [*John* to be sick].



NP-이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아래의 (34b)는 (34a)와 같은 D-구조에 명사구 이동이 적용된 경우이고, (34c)는 의미역이 없는 주어위치에 허사 *it*이 삽입된 경우이다. 격이론 (Case Theory)에서는 (34b)를 일치소에 의해 주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위치로 명사구가 이동한 구조로 다룬다. 그리고, (34c)는 *John*이 (34a)에서와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동사 *seem*도 의미역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역을 지니지 않는 허사 *it*이 주어자리에 위치해 의미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John*이 격을 부여받을 방법이 없어서 격여과를 위배하기 때문에 부적격 구조가 된다고 설명한다.

- (34) a. [_{NP} e] seems *John* to like Mary.
 b. *John*_i seems t_i to like Mary.
 c. **It* seems John to like Mary.

이처럼 격여과는 의미역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명사구 이동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이제까지 NP-이동이 의미역 위치에서 비의미역 위치로, 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위치에서 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 의무적인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NP-이동의 과정에서 명사구 흔적(NP-trace) 즉, 논항 흔적(A-trace)이 생기는데, 이 명사구 흔적은 의미역 문제, 격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NP-흔적은 의미역의 위치에 있으므로 의미역 기준에 의해서 그것의 선행사는 비의미역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35a)는 문법적인 문장이지만, (35b)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왜냐하면, (35a)에서는 수동동사의 주어자리인 비의미역 위치에 *John*이 이동되어 단 하나의 의미역을 부여받지만, (35b)에서는 능동동사의 주어자리인 의미역 위치에 *John*이 이동되어 두 개의 의미역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 (35) a. [_{IP} *John*_i was hit t_i].
 b. * [_{IP} *John*_i hit t_i].

둘째로, NP-흔적의 위치는 격표시 되지 않는 위치에 있으며, 그 선행사는 격여과를 만족하기 위해서 격표시 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 (36) a. *John_i was loved t_i by Mary.*
b. *John_i seems [t_i to be honest].*

위 예문 (36)의 흔적위치에서는 John이 격배정을 받을 수 없다. (36a)의 loved는 타동사의 특성을 상실해서 뒤따르는 NP에 격을 배정할 수 없고, (36b)의 seem도 자동사여서 뒤따르는 NP에 격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NP John이 격표시가 되는 주어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IV. NP-이동과 제약

GB이론 이전에는 NP-이동과 관련된 제약으로, Ross(1967)가 복합명사구 제약(Complex NP Constraint), 문주어 제약(Sentential Subject Constraint), 좌분지 조건(Left Branch Condition)²¹⁾을, Postal(1971)이 교차 제약(Crossover Constraint)²²⁾을, Chomsky(1973, 1977)가 시제문 조건(Tensed-S Condition)과 명시주어 조건(Specified Subject Condition), 그리고, Ross(1967)의 제약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위인접 조건(Subjacency Condition)을 제시하였다.

GB이론에서는 NP-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동 변형을 α -이동(Move- α)이라는 규칙으로 통합하였다. α -이동은 ‘어떤 범주든 어디로나 이동하라’는 규칙으로서, 하등의 제약이나 조건이 없는 극히 일반화된 규칙이다. 따라서, α -이동은 과잉생성을 야기하게 되는데, 각종 단위원리들이 α -이동에 의한 과잉생성을 여과시킨다.

Chomsky(1981a)가 제시하고 있는 단위 원리들은 한계 이론(Bounding Theory), 지배 이론(Government Theory), 의미역 이론(Thematic Theory), 결속이론(Binding Theory), 격이론(Case Theory), 그리고 통제 이론(Control Theory) 등인데, 이 중에서 통제 이론을 제외한 모든 원리가 이

21) J. R. Ross(1967: 70) : No element contained in a sentence dominated by a noun phrase with a lexical head noun may be moved out of that noun phrase by a transformation.

Ross(1967: 134) : No element dominated by an S may be moved out of that S if that S node is dominated by an NP which itself is immediately dominated by S.

Ross(1967: 114) : No NP which is the leftmost constituent of a larger NP can be reordered out of this NP by a transformational rule.

22) Paul M. Postal(1971: 62) : Given a transformation T which moves NP and a phrase marker P to which T is otherwise applicable, T cannot apply to P if the operation of T on P will result in one NP in P crossing another with which it is coreferential.

동 현상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한계 이론²³⁾은 이동 규칙이 적용될 때 이동의 한계와 이동과 관련된 항목들에 추가되는 국소성 조건(locality condition)을 점검하는 원리로, ‘이동이 이루어질 때, 한계 교점인 S와 NP를 한번에 두 개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하위인접 조건을 그 이론적 근거로 삼는다. 지배 이론²⁴⁾은 ‘X인 핵과 최대 투사 XP가 서로를 성분통어(c-command)²⁵⁾할 때, X가 XP를 지배한다’는 구조적 관계를 규정하는 원리이다. 이 지배 이론은 의미역 이론, 격 이론, 결속이론, 공범주 원리와 같은 보편문법의 원리들을 적용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미역 이론²⁶⁾에서는 일반적으로 ‘핵이 자신이 지배하는 보충어에 의미역 기준에 따라 의미역을 할당한다’고 본다. 결속이론²⁷⁾은 조응소(anaphor), 대명사류(pronominal), 지시적 표현(referential expression)과 그 선행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원리이다. 격이론²⁸⁾은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모든 NP는 격을 받아야한다’는 격여과(Case Filter)와 ‘격을 주는 요소와 격을 받는 요소가 인접해 있어야한다’는 격인접 조건(Adjacency Condition on Case Assignment)²⁹⁾이 핵심이 된다.

이 장에서는 명사구를 이동시킬 때 고려해야하는 조건들 중에서 전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시제문 조건, 명시주어 조건, 하위인접 조건, 불투명 조건과 장벽이론에 대해 살펴보겠다.

23) Noam Chomsky(1981a), *op.cit.*, p.5.

24) *Ibid.*, p.163.

25) Andrew Radford(1981: 314) : X c-commands Y iff the first branching node dominating X dominates Y and X does not dominate Y, nor Y, X.

26) Noam Chomsky(1981a), *op.cit.*, p.5-6, 36.

27) *Ibid.*, p.183.

28) *Ibid.*, p.6.

29) T. Stowell(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Ph. D. Diss.*, MIT, p.113.

1. 시제문 조건

시제문 조건(Tensed-S Condition)은 ‘시제가 있는 절 안의 요소는 그 어떤 규칙에 의해서도 그 절 밖의 요소와 연관될 수 없다’는 조건³⁰⁾이다.

다음의 상승구문들을 보자. (37b)는 시제문으로부터 John이 상승되었으므로 시제문 조건을 어겨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그러나, (38b)는 비시제문으로부터 John이 상승되었으므로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37) a. [NP e] seems [S *John* likes Mary].

b. **John* seems [S ___ likes Mary].

(38) a. [NP e] seems [S *John* to like Mary].

b. *John* seems [S ___ to like Mary].

시제문 조건은 수동구문에서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39b)는 시제문에서 ‘the dog’이 빠져 나와 이동되었으므로 시제문 조건을 어겨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만, (40b)는 비시제문으로부터 ‘the dog’가 이동되었기 때문에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39) a. John believes [S *the dog* is hungry].

b. **The dog* is believed [S ___ is hungry] (by John).

30) Noam Chomsky(1973: 238) : No rule can involve X, Y in the structure ...X...[a... Y...], where a is a tensed sentence.

Chomsky(1977: 74)에서는 시제문 조건을 명제섬 조건(Propositional-Island Condition)이라고 부르며, 위 조건의 tensed sentence라는 말 대신에 finite clause라는 말을 쓴다.

- (40) a. John believes [_S *the dog* to be hungry].
 b. *The dog* is believed [_S ___ to be hungry] (by John).

2. 명시주어 조건

명시주어 조건(Specified Subject Condition)은 ‘NP나 S 내에 명시주어가 있을 때 명시주어 이외의 그 어떤 요소도 이 NP나 S 밖의 요소와 연관될 수 없다’는 조건³¹⁾이다.

상승구문 (41)과 수동구문 (42)에서 명시주어 조건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 (41) a. *John* seems [_S ___ to be unlikely [_S ___ to win the prize]].
 b. **The prize* seems [_S ___ to be unlikely [_S John to win ___]].

- (42) a. *John* is expected [_S ___ to help Mary].
 b. **Mary* is expected [_S John to help ___].

(41a)와 (42a)는 명시주어 John이 밖으로 빠져 나와 이동되었으므로 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41b)와 (42b)는 명시주어 John이 아닌 ‘the prize’와 ‘Mary’가 밖으로 빠져 나와 이동되었으므로 명시주어 조건을 지키지 못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시제문 조건과 명시주어 조건은 다음 (43)과 같은 구조에서는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Noam Chomsky(1973: 239) : No rule can involve S, Y in the structure ...X...[_a...Z ...WYV...]... where Z is the specified subject of WYV(a is a cyclic node(=NP of S)).

(43) **John_i is likely [Bill likes t_i]*.

하나의 부적격 구조 (43)을 배제하는데 시제문 조건과 명시주어 조건 모두 잉여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43)은 John이 시제가 있는 내포문 밖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시제문 조건을 위배하고, 동시에 John이 명시주어 Bill을 넘어 이동했기 때문에 명시주어 조건을 위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잉여성을 없애기 위해, Chomsky(1980)는 시제문 조건을 ‘S에 포함된 주격 조항소는 그 S를 포함하는 \bar{n} 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격성 조건³²⁾으로 수정하였고, (43)과 같은 구조는 명시주어 조건의 효과를 지니는 불투명 조건으로 배제하였다.

3. 하위인접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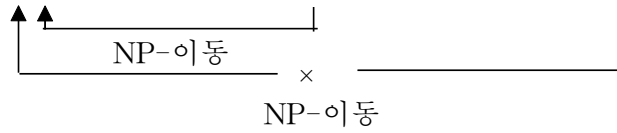
시제문 조건과 명시주어 조건이 이동될 요소가 위치할 구조적 환경을 명시하는 제약이라 한다면, 하위인접 조건(Subjacency Condition)은 구성소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하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위인접 조건은 ‘그 어떤 구성요소도 한 번의 이동 규칙의 적용으로 둘 이상의 NP 또는 S 경계를 넘어 이동할 수 없다’는 조건³³⁾이라 정의된다.

다음 예문 (44)를 살펴보자.

32) Noam Chomsky(1980: 13) : A nominative anaphor in S cannot be free in \bar{n} containing S.

33) Noam Chomsky(1973: 250) : No constituent can move across more than one bounding nodes in a single rule-application(bounding node= NP or S).

(44) [_{NP} e] is likely [_S John to believe [_S Mary to be wrong]].



(44)의 John은 하나의 S 교점을 넘는 이동을 겪는 반면, Mary의 경우 두 개의 S 교점을 넘는 이동을 겪는다. 결코 '둘 이상의 S 교점을 넘어 NP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하위인접 조건에 따라, John을 이동시킨 (45a)는 문법적인 문장으로, Mary를 이동시킨 (45b)는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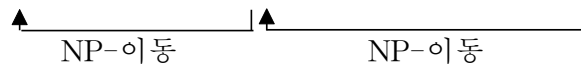
- (45) a. *John* is likely to believe *Mary* to be wrong.
 b. **Mary* is likely *John* to believe to be wrong.

그러나, (46)과 같은 구문을 보자.



(46) a. *The fur* seems to be certain to fly.

b. [_{NP} e] seems [_S [_{NP} e] to be certain [_S *the fur* to f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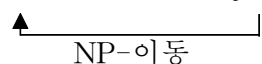
(46a)에서 NP *the fur*는 *fly*와 함께 사용되는 관용적 주어 명사구 표현이기 때문에, NP *the fur*는 원래 *fly*의 주어위치에 있다가, (46b)에서처럼 상승되어 *be certain*의 주어가 되었고, 다시 상승되어 *seems*의 주어가 된 것이라 가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46b)와 같은 유도과정은 NP *the fur*가 두 개의 S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겹으로 보기에 하위인접 조건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NP *the fur*가 별개의 연속적 이동(successive movement)을 하므로, 이

들 각각의 이동에서 NP는 단지 단 하나의 S 경계만을 넘고 있다. 이동에 대한 경계(boundary)역할을 하는 S를 한계 교점(bounding node)이라고 한다면, NP the fur가 단 한번의 이동으로는 단 하나의 한계 교점 경계만을 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하위인접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수동구문에서의 명사구도 (47a)와 같이 단 하나의 S 경계를 넘어서 이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47b)와 같은 문법적 문장을 도출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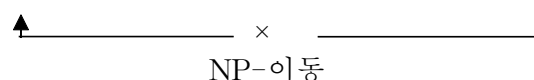
(47) a. [_{NP} e] was said [_S John to believe [_S Mary to be wrong]].



b. *John* was said to believe *Mary* to be wrong.

수동화로 인한 NP-이동도 상승구문에서와 같이 두 개의 S 경계를 넘어서는 안되며, (48a)와 같은 방식으로 *Mary*를 수동화 시킬 수 없다. 그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48b)와 같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48) a. [_{NP} e] was said [_S John to believe [_S *Mary* to be wrong]].



b. **Mary* was said John to believe to be wrong.

그러나, 하위인접 조건으로는 (49)와 같은 문장들이 문법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Chomsky(1986b)는 장벽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장벽 개념을 통해 하위인접 조건을 통합시키고 있다. 장벽이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거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 (49) a. *John* will be invited.
 b. *John* is believed to have left.
 c. *John* seems to have left.

4. 불투명 조건

앞에서 (50)과 같은 부적격 구조를 배제하기 위해 시제문 조건과 명시주어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 (50) a. **John_i* is believed [*t_i* is intelligent].
 b. **John_i* is believed [Mary to like *t_i*].

즉, (50a)에서는 John이 시제문 밖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시제문 조건을 위배하고, (50b)에서는 John이 명시주어 Mary를 넘어 이동했으므로 명시주어 조건을 위배하여 부적격 구조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Chomsky(1980)는 위 예문의 통사 제약인 시제문 조건과 명시주어 조건을 불투명 조건으로 통합하고 있다.³⁴⁾

불투명 조건(Opacity Condition)이란, ‘ α 가 시제의 영역이나 주어의 영역 내에 있는 조음소이면 α 는 시제 또는 주어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NP 또는 $\bar{}$ 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조건³⁵⁾을 뜻한다.

여기서 조음소(anaphor)란 개념은 명사구의 흔적, 재귀대명사, 상호대명사

34) 김동석(1995: 270) : 엄격히 말해서, 불투명 조건으로 통합된 것은 시제문 조건이 아니라, 명제성 조건이다. Chomsky(1980)는 불투명 영역을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것이 시제가 아니라 일치소(AGR)라는 George와 Kornfilt(1978)의 제안에 따라 시제문 조건을 명제성 조건으로 수정했다.

35) Noam Chomsky(1980: 10) : If α is an anaphor in the domain of the tense or the subject of β , β minimal, then α cannot be free in β , $\beta=NP$ or $\bar{}$.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어떤 대상을 지시할 수가 없고 항상 선행사를 통해서 지시 대상이 결정되는 명사구를 말한다. 또, 시제 또는 주어의 영역에 있다는 말은 시제의 자질을 가진 범주나 주어가 성분통어하는 영역 내에 있다는 뜻이다. 또한 α 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α 가 결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불투명 조건은 시제문 내에 있는 조응소는 그 문 내에서 결속되어야 하고, 주어가 아닌 조응소는 주어를 가진 가장 작은 NP 또는 $\bar{}$ 내에서 결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51) a. *The children* believed [_S *themselves* to be happy].

b. *The children* are believed [_S *t* to be happy].

c. I believed [_{NP} *John's* stories about *himself*].

d. *John* heard [_{NP} stories about *himself*].

(52) a. **The children* believed [_S *each other* are happy].

b. **The children* are believed [_S *t* are happy].

c. **John* expected [_S *Mary* to write to *himself*].

d. **John* heard [_{NP} *Mary's* story about *himself*].

(51a)와 (51b)의 내포문에는 시제가 없고 조응소 *themselves*와 *t*를 성분통어하는 주어도 없으므로, 이 내포문은 불투명 영역(opaque domain)³⁶⁾을 형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응소가 이 내포문 내에서 결속될 필요가 없다.

36) 이정민·배영남(1982: 522) : “Opaque(불투명) : Quine(1960)의 용어로서, 투명(transparent)의 반대, 共指示的인(co-referential) 단칭표현(singular expression)들을 대치했을 때 그 진리함수성(truth-functionality)을 유지하지 못하는 구성(construction), 혹은 맥락(context)을 불투명하다고 한다.”

그러나, (51a)와 (51b)의 주절에는 주어와 시제가 있으므로 전체문이 불투명 영역이 되는데, themselves와 t가 the children에 결속될 수 있으므로 (51a)와 (51b)는 적격 구조가 된다. (51c)의 조응소 himself는 NP의 주어 John의 영역 내에 있으므로 NP 내에서 결속되어야 하는데, John에 의해 결속되어 불투명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반면에, (51d)의 NP에는 주어나 시제가 없기 때문에 이 NP는 불투명 영역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조응소 himself가 NP 밖에 있는 John에 결속될 수 있다.

이에 반해, (52a)와 (52b)의 내포문에는 시제가 있고, each other와 t가 시제의 영역 내에 있으므로 이 내포문 내에서 결속되어야 하는데, 이들 조응소를 결속할 수 있는 선행사가 내포문에 없으므로 (52a)와 (52b)는 부적격 구조가 된다. (52c)의 himself는 내포문의 주어에 의해 성분통어되고 (52d)의 himself는 NP의 주어 Mary에 의해 성분통어되므로 (52c)와 (52d)의 himself는 주어의 영역 내에 있다. 따라서, 이들 조응소는 각각 내포문과 NP 내에서 결속되어야 하는데, 이 조응소를 결속할 선행사가 없으므로 부적격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런데, 다음 (53)과 같은 구조를 보면 불투명 조건이 잉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53) a. *John expected [that Mary would write to *himself*].
 b. *John appears [that Mary hates *t*].

(53)의 himself와 t가 내포문의 주어의 영역 내에 있는 동시에 시제의 영역 내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Chomsky(1980)는 이런 잉여성을 제거하기 위해 불투명 조건의 시제 영역을 ‘주격 조응소는 \bar{A} 내에서 결속되어야 한

다’는 주격섬 조건(Nominative Island Condition)으로 독립시키고, 불투명 조건을 명시주어 조건의 효과만 갖도록 ‘주어의 영역 내에 있는 조응소는 주어의 가진 가장 작은 NP 또는 “ ” 내에서 결속되어야 한다’고 수정한다.³⁷⁾

다시 말해 주격섬 조건은 each other와 같이 주격이 부여되는 조응소의 결속에만 관여하고 불투명 조건은 주격이 아닌 조응소의 결속에만 관여하게 되므로 앞서 살펴본 불투명 조건의 잉여성이 배제되는데, (53)의 조응소는 주격이 아니므로 주격섬 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며, 불투명 조건에만 저촉된다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5. 장벽이론

하위인접 조건은 원래 ‘어떤 범주가 이동할 때 한계 교점인 NP나 S를 둘 이상 넘어 이동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서, 이동 규칙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수정확대표준 이론(Revised Extended Standard Theory) 이후 규칙 적용에 대한 통사 제약이 표시층에 대한 허가 조건으로 바뀌게 되었고, Chomsky(1986b)에 와서 한계 교점 대신 장벽(barrier)이라는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모든 최대투사범주가 구조적 위치에 따라 장벽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위인접 조건은 ‘어떠한 요소도 하나 이상의 장벽을 넘어서 이동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수정되었으며, 동시에 연쇄의 고리에 적용되는 제약으로 간주되었다.

장벽이론(Barriers)에서 정의되는 하위인접 조건은 (54)와 같다.

37) 김동석(1995: 162) : Chomsky(1977)는 시제문 조건이 한국어와 같이 시제가 있는 내포문과 없는 문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수용하기 위해 시제문 조건을 명제섬 조건(Proposition Island Condition)으로 수정했으며, Chomsky(1980)에서는 주어위치에 있는 NP에 주격이 부여되는지의 여부가 명제섬 조건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토대로 명제섬 조건을 주격섬 조건으로 수정했다.

(54) α_i 와 α_{i+1} 이 연쇄 고리를 형성하면 α_{i+1} 이 α_i 에 하위인접한다.³⁸⁾

하위인접 조건을 (54)처럼 α_{i+1} 과 α_i 가 연쇄 고리(link of chain)를 형성하면서 인접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한계 이론의 기본 개념은 다음 (55)-(58)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55) 문장의 어떤 요소가 β 자리로부터 α 자리로 이동되어 갈 때, α 를 배척하는 β 에 대한 장벽이 $n+1$ 개보다 적으면 β 는 α 에 n -하위인접한다.³⁹⁾

(56) β 에 대한 차단범주(blocking category: BC)를 직접 관할하는 최소의 최대범주나 β 에 대한 차단범주 중 IP를 제외한 모든 차단범주는 β 에 대한 장벽이 된다.⁴⁰⁾

(57) γ 가 L-표시되지 않고, β 를 관할할 때, γ 는 β 의 차단범주가 된다.⁴¹⁾

(58) α 가 β 를 의미역 지배하는 어휘범주이면, α 는 β 를 L-표시한다.⁴²⁾

38) Noam Chomsky(1986b: 30): If (α_i, α_{i+1}) is a link of a chain, then α_{i+1} is subjacent to α_i .

39) Noam Chomsky(1986b: 30): β is n -subjacent to α iff there are fewer than $n+1$ barriers for β that exclude α .

40) Noam Chomsky(1986b: 14) : γ is a barrier for β iff (a) or (b) :

(a) γ immediately dominates δ , δ a BC for β .

(b) γ is a BC for β , $\gamma \neq IP$.

41) Noam Chomsky(1986b: 14) : γ is a BC for β iff γ is not L-marked and γ dominates β .

42) Noam Chomsky(1986b: 15) : α L-marks β iff α is a lexical category that θ -governs β .

(54)의 하위인접은 (55)에 따라 하위인접도 1을 나타내는데, 하위인접도가 0이 되면 더욱 적절한 구조가 되고, 하위인접도가 2이상이면 부적격 구조가 된다. 따라서, 하위인접도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적격성이 낮아진다. 이는 선행사 α 자리와 흔적 β 자리 사이에 두 개 이상의 장벽이 게재되어 있으면 β 가 α 에 하위인접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결국 부적격 구조가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55)의 배척(exclude)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9) α 의 분절(segment) 중 그 어느 것도 β 를 관할하지 않으면 α 가 β 를 배척한다.⁴³⁾

(56)의 차단범주 중 IP를 제외한 모든 차단범주는 그 자체만으로 지배를 차단하는 장벽이 되므로 고유장벽(inherent barrier)이라 하고, 차단범주를 직접 관할하는 최소의 최대범주는 차단범주에서 장벽성(barrierhood)을 계승하여 장벽이 되므로 계승장벽(inherited barrier)이라고 한다.⁴⁴⁾

그러면 장벽이론에서의 NP-이동 현상을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60) a. [_{IP1} *John*_i [_I seems_j] [_{VP} *t*_j [_{IP2} *t*_i to be intelligent]]].
 b. [_{IP} *John*_i [_I was_j] [_{VP} *t*_j killed *t*_i]].
 c. * [_{IP1} *John*_i [_I seems_j] [_{VP} *t*_j [_{CP} that [_{IP2} it appears [_{IP3} *t*_i to be intelligent]]]]].

43) Noam Chomsky(1986b: 9) : α excludes β if no segment of α dominates β .

44) Chomsky(1986b)의 장벽이론은 지배이론과 한계 이론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국소 제약이지만, 고유장벽과 계승장벽은 지배와 이동에 적용되고, 최소장벽은 지배에만 적용된다. 하위인접 조건은 이동에 대한 제약이므로, (56)에서 언급하는 장벽은 고유장벽과 계승장벽만 해당된다.

(60a)에서 $John_i$ 는 t_i 자리에서 격여과를 만족하기 위하여 주절의 주어자리인 논항위치로 이동하여 [$John_i, t_i$]가 논항 연쇄(A-chain)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얼핏보기에 두 개의 장벽인 VP와 IP_2 를 넘어 $John_i$ 와 t_i 가 연쇄를 이루므로 앞에서 다룬바 있는 하위인접 조건을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t_i 로부터 $John_i$ 로의 이동에서 IP_2 는 (56)의 취지에 따라 장벽을 형성하지 못한다. VP는 L-표시되지 않아 차단범주를 이루어 장벽이 되지만, (60a)처럼 V가 I 위치로 이동하여 시제와 일치의 자질과 융합된 동사 V_I (inflected verb)가 되면⁴⁵⁾, 이 V_I 는 어휘범주가 되므로 VP를 L-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V_I 가 VP의 장벽성을 해소한 (60a)와 같은 통사구조에서 [$John_i, t_i$]의 논항 연쇄는 겉으로 보이는 두 개의 장벽을 하나도 넘지 않게 되어, 하위인접도 0이 된다. 그러므로, (60a)는 한계 이론의 하위인접 조건을 지키면서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수동구문인 (60b)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60c)에서는 IP_2 가 L-표시되지 않으므로 차단범주가 되고, (56)에 따라 CP가 계승장벽이 되므로, t 가 John에 하위인접도 1이 된다. 하위인접도 1은 하위인접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럼에도 (60c)가 부적격 구조가 되는 것은 '대명사가 아닌 공범주는 고유지배되어야 한다'는 공범주 원리⁴⁶⁾를 위배하기 때문이다.⁴⁷⁾

NP-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흔적이 공범주 원리를 충족하는지 보이기 위해, Chomsky(1986b)는 지정어와 핵의 일치(spec-head agreement)와 이동으로 이루어진 연쇄의 동지표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⁴⁸⁾

45) Noam Chomsky(1986b: 24) : IP의 지정어 자리에 오는 주어와 INFL 속의 AGR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정어-핵 일치(spec-head agreement)는 지정어와 핵이 인칭, 수, 격 등의 자질을 공유하는 현상으로 의미역지배와 유사하다.

46) Noam Chomsky(1986b: 17) : A nonpronominal empty category must be properly gover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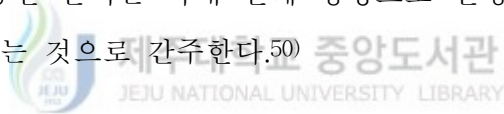
47) 박상수(1994), 「영어통사론」, 서울: 형설출판사, p.393-394.

48) Noam Chomsky(1986b: 79) : Spec-head agreement and chains involve the same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60a) [_{IP1} John_i [_I seems_j] [_{VP} t_j [_{IP2} t_i to be intelligent]]] 문장을 공범주 원리와 관련해 분석하면, John과 V_I가 지정어와 핵의 일치로 동일지표화되고, V_I와 t_j는 이동에 의한 연쇄로 동일지표화된다. 결국 John, V_I, t_j는 John의 흔적으로서 John과 같은 지표를 가지므로, t_j와 t_i는 동일한 지표를 갖게 된다. 따라서, (John, V_I, t_j)와 t_i가 확대연쇄⁴⁹⁾를 형성하고 t_j가 t_i를 지배하므로, t_i가 t_j에 선행사 지배되어 공범주 원리를 충족한다.

다시 (60c) * [_{IP1} John_i [_I seems_j] [_{VP} t_j [_{CP} that [_{IP2} it [_I appears_k] [_{VP} t_k [_{IP3} t_i to be intelligent]]]]]] 문장으로 되돌아가자. John과 V_I, t_j, 및 t_i는 일치와 이동의 연쇄로 동일지표화되어 확대 연쇄를 형성한다. 그러나, CP가 장벽이므로 t_j가 t_i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t_i가 선행사 지배되지 못해 공범주 원리를 위배해서 부적격 구조가 된다.

즉, 명사구가 이동한 흔적은 확대 연쇄 형성으로 선행사 지배되어야 공범주 원리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⁵⁰⁾



indexing.

Chomsky(1986b: 75) : Suppose that we now assimilate these relations, assuming that the abstract feature F is an index shared in spec-head agreement and that it is the same index that appears in a chain; in other words, indexing is unique.

49) Noam Chomsky(1986b: 75) : (α₁, ..., α_n, β) is an extended chain if (α₁, ..., α_n) is a chain with index i and β has i.

50) Noam Chomsky(1986b: 79) : Possibly, a verb does not properly govern its θ-marked complement, If something of this sort proves correct, then we can eliminate θ-government from the definition of "proper government" at least for the case of verb-complement structures. ... , and in the case of A-movement (raising and passive) the trace will be antecedent-governed independently of θ-marking.

V. 최근 NP-이동 연구 경향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는 NP-이동 현상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Chomsky(1993, 1994)는 경제원리(Principle of Economy)를 통해 모든 이동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Baltin(1995)은 VP-내부에 주어가 위치한다는 VP-내부 주어 가설(VP-Internal Hypothesis)을 제시하여 모든 문장에서 NP-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Rothstein(1995)은 술어 원리(Predication Principle)를 제시하여 I-bar와 같은 술어들은 반드시 주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spec-IP가 비어있을 시에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며, 이는 주어 상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여기서는 Chomsky(1993, 1994)와 Baltin(1995)을 중심으로 NP-이동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Chomsky(1993, 1994)의 연구

Chomsky(1993)는 GB이론이 격이론, 결속이론, 지배 이론, 의미역 이론, 한계 이론, 통제 이론, 공범주 원리 등 여러 가지 원리와 가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원리와 가설들이 잉여적이거나 상충되어 간결, 명료성을 지향하는 보편문법의 근본 성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문법의 설명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MP이론이라는 수정이론을 제안하였다.⁵¹⁾

MP이론은 명칭 그대로 문법이론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문법이론이 최소

51) Chomsky(1993)는 “the minimalist program”에서 “theory”라는 용어 대신에 “program”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학자에 따라 Chomsky(1994)의 이론을 “필수이론”(양동휘 1994), 또는 “소형구구조 이론”(박승혁 1995)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본고에서는 Chomsky(1993)의 이론과 Chomsky(1994)의 이론을 통칭하여 “MP이론”이라 부르겠다.

화되려면 표시층(representation)도 최소화되고 파생과정(derivation)도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표시층은 GB이론의 D-구조, S-구조, 음성 형태(phonetic form: PF), 논리 형태(logical form: LF)에서 D-구조와 S-구조를 제거해서 PF와 LF만을 남겨둔다. 이는 소리(PF)와 의미(LF)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언어 현상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로 필요한 이 두 층(level)만을 남기고 다른 부분은 모두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파생과정도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문법의 각종 원리를 경제원리 하나로 최소화하며, 핵계층 구조(X-bar structure)의 분지(branching)의 수도 최대 두 개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동과 관련된 경제원리는 이동은 필요할 때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주요 경제원리에는 최단 이동(Shortest Move), 지연성(Procrastinate) 및 이기성(Greed)이 있다. 최단 이동이란 하나의 구성소가 이동할 때 본래의 위치에서 이동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첫 위치로 이동해 간다는 뜻이다. 지연성이란 어떤 원리를 적용하기 전에 가능한 오래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후 수단(Last Resort) 원리와도 같다. 최후 수단 원리란 모든 문법적 작용은 각기 최후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선택이 금지되었을 때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기성이란 어떤 구성소가 다른 구성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구성소의 형태론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초인상, 의미역 기준, 격이론, 시제문 조건, 명시주어 조건 등으로 설명하던 현상을 MP이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종래에 초인상(super-raising)이라고 불리던 현상은 다음 (61)에서

persuade의 목적어자리가 의미역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비어있게 되므로 의미역 기준을 어기게 된다. 그러나, MP이론에서는 D-구조의 의미역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62b)의 비문법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즉, (62a)에서 보듯이 Mary를 전혀 이동하지 않고도 (62b)와 같은 의미의 구조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62b)는 최소 단계 원리를 어기게 되어 비문으로 판정된다는 것이다. (62a)와 (62b)의 유일한 차이는 (62a)에서는 내포문 IP의 주어가 PRO인데 (62b)에서는 내포문 IP의 주어가 흔적 t라는 것뿐이다. PRO는 어휘부(lexicon)에서 직접 도입되므로 도출의 단계로 간주되지 않지만, 흔적은 이동에 의하여 생겨나고, 이동은 도출에서 한 단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소 단계 원리에 입각하여 (62b)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전에 격이론으로 설명하던 현상도 MP이론에서는 자신의 형태론적 요구를 이기적으로 만족시키는 이기성 원리⁵³⁾로 설명하고 있다.

he는 주격, him은 목적격이듯이, 명사/대명사 논항들은 내재적으로 격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격 자질들은 도출과정에서 점검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을 보자.

- (63) a. He_i seems [t_i to understand her].
 b. He_i would appear [t_i to be lying].
 c. He_i turned out [t_i to be right].

MP이론의 이기성 원리에 따르면 (63)의 he는 자신의 격, 즉 주격을 점검

53) Noam Chomsky(1993) : A grammatical operation cannot apply to α to enable some different element β to satisfy its properties. ; 상계서, p.571에서 재인용.

Chomsky(1994: 14) : Move raises α to a position β only if morphological properties of α itself would not otherwise be satisfied in the derivation. ; 김동석(1995), 전계서, p.459에서 재인용.

받기 위해 내포문에서 주절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능동태에서는 동사의 목적격 보충어를 허용하지만, 수동태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동일한 성격의 이기성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 (64) a. They saw *him*.
b. *It was seen *him/he*.
c. *He_i* was [_{VP} *t_i* seen *t_i*].

(64)의 *him*이 지니는 목적격은, *him*이 타동사인 능동동사 *saw*의 보충어로 쓰일 때는 점검되지만, 자동사인 수동분사 *seen*의 보충어로 쓰일 때는 점검될 수 없다. 전통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이 관계를 설명하면, *seen*에 있는 수동분사 굴절형태소 *+en*이 *see*의 타동사 능력을 흡수해버리고, 그 동사를 자동사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리하여, *him*이 지니는 격 자질들은 (64b)에서는 점검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생성된 비인칭 수동구문은 비문법적이게 된다. 목적격 대명사 *him* 대신 주격 대명사 *he*를 사용했을 때 또한 비문법적인 이유는 주격 대명사가 *seen*과 같은 수동분사의 보충어로 사용될 때는 자신의 격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64c)에서 *he*는 연속적인 두 가지 논항이동, 즉 *he*가 *seen*의 보충어에서 *seen*의 주어가 되는 상승(raising)과 *was*의 주어가 되는 수동화(passivization)를 겪으면서 주어위치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의 주격은 점검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과정을 겪는 문장은 완벽하게 문법적이게 된다. 다시 말해 *he*의 주격 자질을 점검 받기 위해 수동화가 발생한다.

이기성 원리를 통해 논항인 NP는 자신의 형태론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도만 이동할 뿐, 불필요한 이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분

석할 수 있다.

(65) a. **He* is said [has lied to Parliament].

b. *He* is said [to have lied to Parliament].

예컨대, (65a)의 *he*는 내포문에서 자신의 주격 자질을 점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절로의 이동이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주절로 이동을 겪은 (65a)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반면, (65b)의 내포문의 주어 *he*는 내포문에서 자신의 격을 점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격을 점검 받을 수 있는 주절의 주어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이기성 원리는 또 한정절의 주어가 수동화 되지 않는 이유도 제시해 준다. (65b)의 부정사절의 주어는 수동화가 가능한 반면, (65a)의 한정절의 주어는 수동화 되지 않는다. 만약 (65)의 괄호 안의 주어가 수동화 되지 않고 제자리에 남아있으면, (65a)와 (65b)는 각각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66) a. It is said [*he* has lied to Parliament].

b. *It is said [*he* to have lied to Parliament].

(66a)를 보면 *he*는 한정 조동사 *has*의 주어로서 이미 주어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격 자질은 그 자리에서 점검될 수 있다. 따라서, (66a)의 *he*는 또 다른 주어위치로 이동될 필요가 없고, 주절의 주어위치로 이동을 겪은 (65a)가 비문법적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66b)에서는 대명사 *he*가 제자리에 남게 되면 주격 자질을 점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위치로 이동된다. 따라서, 격점검과 같은 형태론적 요구사항들이 대명

사 he를 수동화시키며, (65b)에서처럼 주절의 주어위치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원리에 입각한 MP이론은 또 GB이론의 근간이 되었던 시제문 조건과 명시주어 조건을 위배한 문장의 비문법성도 올바르게 판정하고 있다.

(67) a. **John_i seems [t_i likes Mary]*.

b. **John_i seems [Mary likes t_i]*.

(67a)의 내포문의 주어 John은 격과 일치의 자질을 점검 받기 때문에, 주절로의 이동은 이기성 원리에 저촉되어 부적격 구조가 된다.

(67b)의 내포문의 목적어 John도 격과 일치의 자질이 점검되기 때문에, 이명사구가 주절의 주어위치로 이동하는 것은 이기성 원리의 저촉을 받는다.

이렇듯, MP이론에서는 의미역 기준이나 격이론, 시제문 조건, 명시주어 조건 등으로 설명하던 NP-이동 현상을 최단 연결 원리, 최소 단계 원리, 이기성 원리 등의 경제원리에 입각해 문법이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동 현상 중 상당 부분이 경제원리로 설명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68) a. *John_i is likely [t_i to win]*.

b. **John_i is probable [t_i to win]*.

(68a)는 최단 연결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보충어 구문을 취하는 형용사의 차이 밖에 없는 (68b)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은 최단 연결 원리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모든 이동구문들에 대해서 적절한 분석

을 제시할 수 있어야 MP이론은 더욱 확고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Baltin(1995)의 연구

MP이론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VP의 지정어 자리에 온다고 여기는데, Baltin(1995)은 동사구-내부 주어 가설을 제시해서 NP-이동을 더욱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절의 의미 핵심은 VP이다. 그래서 VP는 논항 즉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동사를 다 포함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격이론의 최대통어(m-command) 개념을 없애고 의미역 할당도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1) VP-내부 주어 가설

이 가설은 기존의 GB이론에서 주어-외재 논항(external argument)으로 동사구 밖의 INFL의 지정어자리에 기저 생성된다고 보는 견해와는 달리, 주어-내부 주어 가설에서는 문장의 주어 명사구(NP)는 처음 동사구의 지정어위치에서 기저에서 생성되어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부여 받으며, 그 이후 주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INFL의 지정어위치로 상승한다고 본다.

1990년대의 MP이론에서는 동사구-내부 주어 가설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서 VP가 행위자역 주어를 취하는 사역의 뜻인 경동사(v)가 핵인 외부 vp와 주제역 주어를 취하는 어휘 동사(V)가 핵인 내부 VP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주로 행위자(agent)나 사역자(causer)의 의미역을 받는 주어는 VP를 보충어로 취하는 경동사 v의 지정어위치가 된다.

그러면 VP 내부에 주어가 생성된다는 VP-내부 주어 가설의 당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통사론적 그리고 의미론적인 면에서 제시해보겠다.⁵⁴⁾

① 통사론적 근거

VP 내부에 주어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허사구문(expletive structure), 접어화(cliticization), 재귀사 해석(reflexivization), 술어 명사류(predicate nominals), 유리양화사(floating quantifier) 그리고 관용구 표현(idiom)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a) 허사구문



허사구문은 be 동사형이 뒤따르는 강세가 붙지 않는 존재의 there로 시작되는 구문으로서 there는 전혀 내재적 의미 내용이 없는 대역 성분을 지니기 때문에 pleonastic 혹은 dummy 요소라 부르기도 한다.

(69) a. *There* is someone knocking at the door.

b. *There's* someone knocking at the door, isn't *there*?

(69a)의 허사 there는 (69b)의 부가의문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명사적 한정사(pronominal determiner)처럼 쓰이고 있다. 즉, (69)와 같은

54) 여기서 제시하는 예문은 주로 Radford(1997)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문장에서 대명사 *there*가 IP의 지정어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조동사(auxiliary)와 관련해서 살펴보자.

(70) a. *Is there someone knocking at the door?*

b. [IP [D There] [I' [I is] [VP *someone* knocking at the door]]].

c. [IP [D There] [I' [I is] [VP [Q *someone*] [V' [V knocking] [PP at the door]]]]].

d. [IP [D There] [I' [I is] [VP [Q *someone*] [V' [V knocking] [PP at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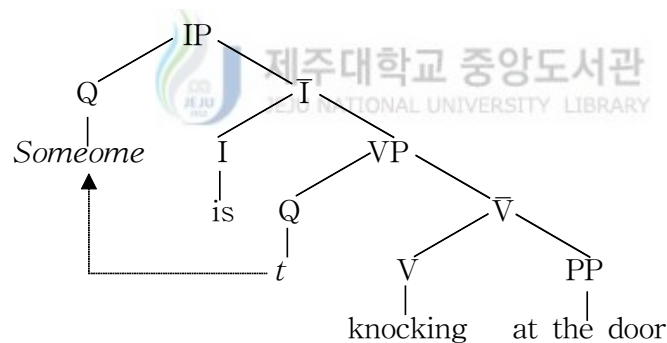
조동사 *is*는 (70a)와 같은 yes-no 의문문에서 *there* 앞, 즉 보문소 (complementizer) 위치로 이동될 수 있다. *is*는 IP의 핵, I 위치에서 출발하여, IP의 지정어위치에 있는 허사 *there*를 넘어 CP의 핵 C 위치로 이동한다. 일반적으로 조동사 도치로 인해 조동사가 IP의 지정어위치에 있는 주어를 넘어서 이동하게 됨을 이해하면, (69a)의 조동사 *is*가 (70a)에서처럼 허사적 대명사 *there*를 넘어 이동했다는 것은 *there*가 IP의 지정어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동사가 VP를 보충어로 취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69)의 조동사 *is*의 보충어가 VP가 되고, (69a)는 (70b)와 같은 구조를 지닌 IP가 된다.

위 (70b)에서 VP의 내부 구조를 보면, *knocking*은 VP의 핵 V에 해당하고, *at the door*는 V *knocking*의 보충어에 해당된다. 여기서 과연 *someone*이 VP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특정 구성성분의 주어위치가 그 구성성분과 관련된 투사(relevant projection)의 지정어위치임을 고려하면, (69)의 *someone*은 (70c)에서처럼 VP의 지정어위치(spec-VP)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70d)에서 someone은 조동사 is의 주어이고, IP의 지정어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70c)에서 someone은 knocking의 주어이며, VP의 지정어위치를 차지한다.

이처럼, someone과 같은 주어가 (69)와 같은 허사구문에서는 spec-VP 위치를, (70d)와 같은 비허사구문에서는 spec-IP 위치를 차지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구성성분들은 하위위치(lower position)에서 상위 위치(higher position)로만 이동이 가능한데, 이는 앞서 제시한 (69)와 (70d)에서 someone이 차지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someone이 spec-VP 위치에서 출발해서, (69)와 같은 허사구문에서는 제자리에 남게 되고, (70d)와 같은 비허사구문에서는 spec-IP 위치로 상승된다는 것이다. 다음 (71)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71)



위 (71)의 이동 작용은 someone을 VP의 주어위치에서 IP의 주어위치로 상승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주어-주어 상승(subject-to-subject raising), 혹은 주어상승(subject raising), 상승(raising)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71)의 분석과 같이 VP-내부 주어 가설에서는 spec-IP 위치가 의미 없는 허사로 채워지는 허사구문과 같은 몇몇 구문에서를 제외하고는 주어가 spec-VP 위치에서 출발해서, spec-IP 위치로 상승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b) 접어화

원래 접어란 단어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단어에 부가되어야만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축약형 부정 소사 n't는 접어로서 정형 조동사에 첨가되어 isn't, shouldn't, mightn't 등의 표현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ve도 have의 접어형으로서 모음이나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대명사에 첨가되어 we've, you've, they've 등의 표현을 만든다.

이번에는 VP-내부 주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접어화와 관련시켜 제시해 보자.

(72) a. We want to help you.

b. We wanna help you.



기존에는 의견상 주어 없는 부정사 보충어가 spec-IP 에 영격(null-case) PRO 주어를 취한다고 가정했었다. 만약 그렇다면, (72a)는 다음 (73)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73) [_{IP} [_D We] [_{I'} [_I] [_{VP} [_V want] [_{IP} [_D PRO] [_{I'} [_I to] [_{VP} help you]]]]]].

그러나, (73)과 같은 분석은 공범주 PRO가 to와 want가 접어화 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72b)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고 잘못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PRO 주어가 spec-VP 위치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면, (72a)는 다음

(74)와 같은 구조를 지니게 된다.

(74) [IP [D We] [I' [I] [VP [V want] [IP [I to] [VP [D PRO] [V' help
you]]]]]].

결국 (74)에서는 want와 to 사이를 가로막는 외현적(overt)이거나 내현적(covert)인 범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to와 want가 접어화 되어 (72b)의 wanna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c) 재귀사 해석

앞에서 필자는 이동된 구성성분은 이동되기 전의 자신의 위치에 흔적을 남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어가 spec-VP 위치에서 spec-IP 위치로 상승한다면, 주어는 spec-VP 위치에 흔적을 남긴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동된 구성성분과 흔적 사이의 관계를 통해 VP-내부에 주어를 설정해야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외견상 주어가 없는 VP가 spec-VP에 흔적 주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재귀사와 관련해 살펴보자.

(75) a. He certainly has [compromised *himself*].

b. [VP Compromised *himself* / **themselves*], he certainly has.

재귀사는 자신을 포함하는 구 내에 자신을 국부적으로 성분통어하는 선행사(local c-commanding antecedent)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75)의 재귀사들도 (76)에서처럼 자신을 포함하는 꺾쇠로 표시된 동사구

안에 선행사를 가져야 적형인 문장이 된다.

(76) [_{IP} *He*_i certainly [_I has] [_{VP} *t*_i [_V compromised] *himself*]

(76)과 같은 분석은, *compromised*의 주어 *he*가 spec-VP에서 출발해서 spec-IP로 상승되어 결국 *has*의 주어가 되며, 상승되기 이전의 위치인 spec-VP 위치에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76)에서 이동된 주어 *he*의 흔적 *t*_i가 *himself*의 선행사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75a) 문장의 문법성과 *themselves*의 적절한 선행사가 없는 (75b) 문장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흔적 *t*_i가 외현적 음성형태만 지니지 않을 뿐, 이동된 자신의 선행사 *he*와 동일한 통사론적, 의미론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76)의 흔적 *t*_i가 자신의 선행사 *he*와 동일한 3인칭 남성 단수 (third person masculine singular) 자질을 지니게 된다.

d) 술어 명사류



술어 명사류란 술어로 쓰이는 명사적 표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John is a fool*과 *I consider them fools*에서 *a fool*과 *fools*가 술어 명사류이다. 이 경우, *a fool/fools*는 각각 *John/them*의 속성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be*, *become*, *remain*, *stay* 등과 같은 연계동사(copular verb)의 보충어가 되는 부분의 명사는 주절의 주어와 성·수·인칭에 있어 일치가 되어야 한다. 연계동사 구문에서 VP가 전치될 경우 술부명사의 성·수·인칭에 대한 문제는 VP-내부 주어 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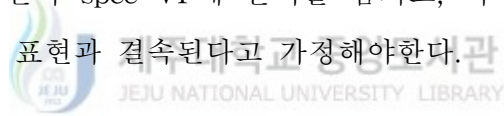
(77) a. *They_i* probably will [*t_i* become millionaires/*a millionaire].

b. [*t_i* Become millionaires/*a millionaire], *they_i* probably will.

(78) a. *They_i/*He_i* really shouldn't [*t_i* live together].

b. [*t_i* Live together], *they_i/*he_i* really shouldn't.

위 (77)과 (78)에서 꺾쇠로 표시된 VP 내의 지정어위치를 흔적 주어가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해야만, (77)의 술부 명사 상당어가 spec-VP에 위치하고 있는 주어 t_i 와 수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어 복수형태가 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78)에서 together는 they의 흔적에 의해 결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각 예문에서는 국부적 선행사를 필요로 하는 표현이 있으며, 이 표현이 국부적 선행사를 가지려면 주어가 원래 spec-VP에 있다가 spec-IP로 상승되면서 spec-VP에 흔적을 남기고, 이 흔적이 국부적 선행사를 필요로 하는 표현과 결속된다고 가정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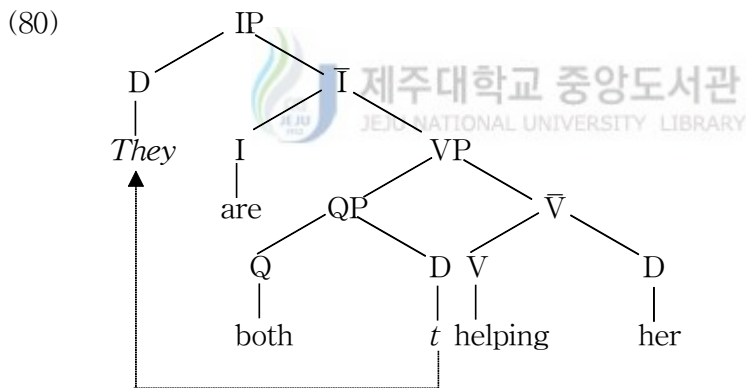


e) 유리양화사

유리양화사란, all, both, each, everyone 등과 같이 자신이 수식하는 명사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위치에 나타나는 양화사를 말한다. 따라서 주어가 원래 spec-VP에서 비롯하지만 spec-IP로 상승된다는 가정은 어떻게 양화사가 자신이 수식하는 주어표현과 분리되는가에서 설명될 수 있다. 유리양화사의 위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VP-내부 주어 가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 (79) a. *They are both helping her.*
 b. *You will each receive a present.*

(79)에서 양화사 both/each는 자신이 수식하고 있는 주어 They/You와 동떨어져 있다. (80)에서 보듯이, (79)의 They/You가 자신을 수식하는 both/each와 함께 QP를 형성해 VP의 주어였다가 격을 받기 위해 상승된 것이라고 설명이 된다. 그리고, 양화사 both/each는 결국 이동된 대명사 They/You의 흔적을 수식하게 되며, 외견상 are/will과 helping/receive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처럼, 주어가 spec-VP 위치에서 spec-IP 위치로 상승된다는 가정은 양화사가 자신이 수식하는 주어 표현과 분리되어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f) 관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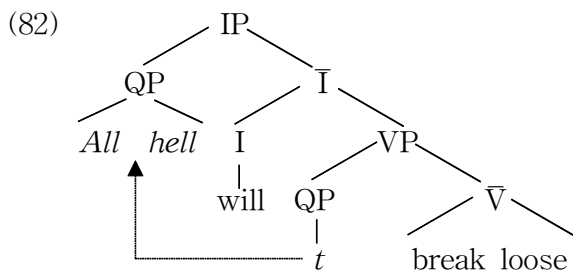
GB이론에서 관용구는 관용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고유 의미가 아닌 독특한 의미를 갖는 파생적 어휘 항목(derived lexical item)이 되어 구 전체가 하나의 동사처럼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특히 동사와

보충어의 선택뿐만 아니라 주어의 선택도 제약을 받아 주어, 동사, 보충어 세 성분의 선택이 고정되는 관용구를 절 관용구(clausal idioms)라고 부른다.⁵⁵⁾ 예를 들어, VP 관용구 All hell broke loose의 경우, 자신의 핵으로 특정 동사 break를, 자신의 보충어로 특정 형용사 loose를, 자신의 지정어로 특정 양화사구 all hell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 관용구의 구조에서도 유리양화사와 유사한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 (81) a. All hell *will* break loose.
 b. All hell *has* broken loose.
 c. All hell *could have* broken loose.

특정 구성성분을 형성하는 일련의 단어들이 관용구가 될 수 있다면, (81)의 세 문장들이 특정 구성성분을 형성하지 않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주어, 동사, 보충어의 선택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조동사의 선택은 고정적이지 않은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동사의 주어가 이동한 것이라고 대답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된다. (81a)에서 all hell이 조동사 will 앞에 위치할 수 있는 이유는, QP all hell이 V-bar break loose의 주어로서 spec-VP 위치에 있다가, (82)에서처럼 I-bar will break loose의 주어가 되는 spec-IP 위치로 조동사 will을 넘어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55) Radford(1997), *op.cit.*, p.160.



② 의미론적 근거

이제까지 VP-내부 주어 가설을 지지하는 통사론적 증거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이 가설을 옹호하는 의미론적 증거를 내적 논항과 외적 논항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겠다. 원래 논항이란 동사가 갖는 논항구조에 따라 지정된 의미역을 갖는 요소를 말한다. 논항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명사구(NP), 변항(variable), 대용사(anaphor), 대명사류(pronominals) 등이 있다. 허사(expletive)인 *it*과 *there*는 의미 내용을 갖지 않으므로 논항이 아니다. 대체로 동사의 보충어는 V-bar 내부에 위치하는 반면, 동사의 주어는 V-bar 외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자를 내적 논항(internal argument), 후자를 외적 논항(external argument)이라 부른다.

(83) *The police arrested the suspects.*

위 예문에서 *the suspects*는 술부 *arrested*의 보충어로서 내적 논항에 해당하고, *the police*는 술부 *arrested*의 주어로서 외적 논항에 해당한다. *arrest* 처럼, 내적 논항과 외적 논항을 취하는 술어를 2항 술어(two-place predicate)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arrest*와 같은 동사가 두 개의 DP(Determiner Phrases) 논

항을 취한다고만 설명하는 것은, 그 두 개의 논항들이 각각 arrest의 행위와 관련해 매우 다른 의미론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논항구조를 설명할 때에, 각각의 논항이 술부와 관련해 어떠한 의미론적 역할을 하는지, 즉, 어떠한 의미역을 지니는지에 대한 적절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84) a. *John* threw a ball.

b. *John* threw a fit.

(84a)와 (84b)의 문장에서 threw의 주어 John은 각각 다른 의미역을 지닌다. (84a)의 John은 threw a ball의 동작주역(agent)이고, (84b)의 John은 threw a fit의 경험자역(experiencer)을 지닌다. 이 예문으로부터 주어의 의미역은 동사 하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사와 보충어가 결합된 성분, 즉 V-bar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사는 내적 논항, 즉 보충어에 직접적으로 의미역을 할당하지만, 외적 논항, 즉 주어에는 간접적으로 의미역을 할당한다는 사실이다. throw와 he 사이에 조동사가 삽입되어 있는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85) a. He *will* throw the ball/a 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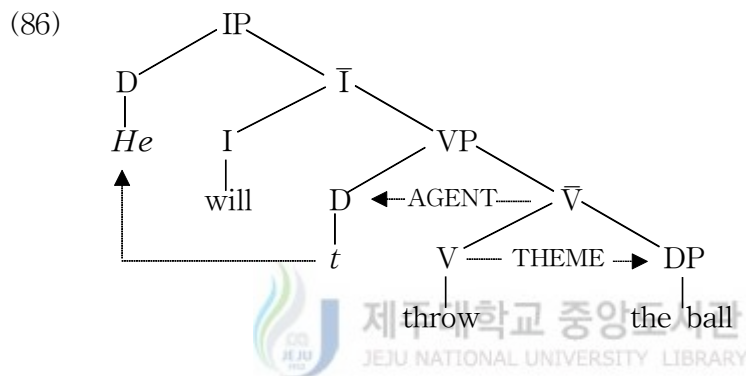
b. He *was* throwing the ball/a fit.

c. He *had been* throwing the ball/a fit.

d. He *might have been* throwing the ball/a fit.

위 문장들에서 주어 he의 의미역은 V-bar 구성성분의 선택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기능범주인 조동사의 선택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의미역이 어휘범주와의 합병과정을 통해서만 논항에 배정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85a)의 경우, 동사 throw가 DP the ball과 합병되면서, the ball에 대상역(theme)을 할당하고, 이러한 합병으로 형성된 V-bar throw the ball이 대명사적 한정사 he와 합병됨과 동시에, he에 동작주역(agent)을 할당한다. 그리고, 이 VP에 will과 합병되면서 I-bar will throw the ball이 되며, 이어서 주어 he가 spec-VP에서 spec-IP 위치로 상승된다는 것이다. 다음 (86)이 이러한 과정을 잘 설명해준다.



이상에서 VP-내부 주어 가설을 가정해야만 논항이 어휘범주 V와의 합병 작용에 의해 의미역을 할당받게 될 수 있으며, 조동사는 의미역 배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제기되는 의문점은 왜 spec-VP 위치에 있던 주어가 spec-IP 위치로 이동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술어들은 반드시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Rothstein(1995)의 술어 원리(Predication Principle)를 들 수 있다. I-bar와 같은 술어들은 반드시 주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spec-IP가 비어있을 시에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며, 이는 주어의 상승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점검 이론(Checking Theory)도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데, 영어에서 INFL은 강한 지정어 자질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의 지정어 자질들을 점검 받기 위해 spec-IP에 주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어는 강한 주격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spec-IP에 상승될 경우에만 격을 점검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주어는 격자질을 점검 받기 위한 의무적인 상승을 겪는다.

지금까지 주어는 VP 내부의 의미역 표시된 지정어위치에서 생성되어 IP 내부의 격표시되는 지정어위치로 상승된다고 주장하였다.

2) 상승구문에서의 A-이동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어와 보충어 등의 문법적 기능을 지닌 명사구가 이동을 겪을 때에는 이동된 요소와 그 흔적이 모두 논항위치에 있게 된다. 이 때, 이동된 명사구와 그 흔적이 논항 연쇄(A-chain)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NP-이동을 논항이동(A-movement)이라고도 한다. 앞서 다루었듯이, 상승과 수동화는 논항위치에서 논항위치로 이동을 겪는 논항이동의 한 유형들이다. 여기서는 상승구문과 수동구문에서의 논항이동이 VP-내부 주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양화사의 위치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문장들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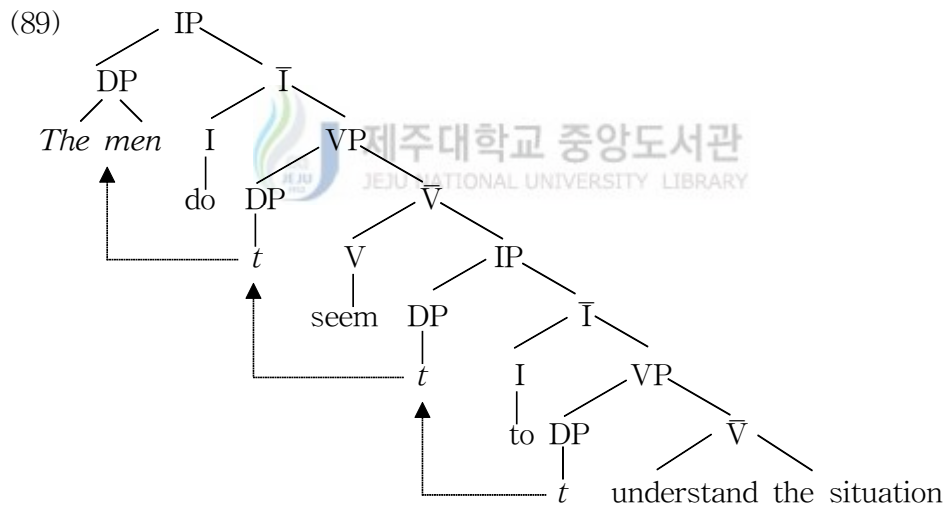
- (87) a. The men do *all* seem to understand the situation.
 b. ? The men do seem *all* to understand the situation.
 c. ?? The men do seem to *all* understand the situation.

유리양화사가 이동된 주어의 흔적을 수식한다면, *all*을 핵으로 갖는 양화사

구(QP)는 understand the situation이나, to understand the situation 및 seem to understand the situation 주어로 모두 기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어인 DP the men이 연속적 순환에 의해 상승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88) *The men do seem to understand the situation.*

즉, 위 문장의 DP the men은 VP-내부 주어 가설이 시사하는 것처럼, 원래 understand의 주어로 시작하여, to의 주어, seem의 주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do의 주어가 된 것이다. 이것을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9)는 DP the men이 understand the situation의 주어로 시작했다가 연속적 순환작용에 의해 처음엔 to understand the situation, 그리고 나서 seem to understand the situation의 주어가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위 수형도에서 적용된 이동 작용들은 주어에서 주어로의 상승작용

이다. 그리고, 각각의 상승작용의 적용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흔적을 뒤에 남긴다고 할 경우, (89)의 이동된 주어 the men의 흔적은 세 개가 생긴다. 또한 유리양화사가 이동된 주어의 흔적들을 수식한다고 가정한다면, (87)과 같은 문장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87c) The men do seem to all understand the situation에서는 all이 the men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흔적을 수식하는 것이고, (87b) The men do seem all to understand the situation에서는 중간에 위치한 흔적을, (87c) The men do all seem to understand the situation에서는 가장 왼쪽에 있는 흔적을 수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87a)가 (87b)나 (87c)보다 적형인 이유는 유리양화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표현과 가깝게 위치해 있어야 더욱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주어에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는 상승동사의 특성을 상기하면서, 다음의 예문을 의미역 기준과 관련시켜 살펴보자.



(90) *He* does seem to enjoy syntax.

(90)의 he는 enjoy syntax의 주어로 시작된 것이고, enjoy로부터 경험자역 (experiencer)을 할당받는다. 그리고 나서, he는 연속적인 순환에 의해 우선 to enjoy syntax의 주어가 되고, 그런 연후에 seem to enjoy syntax, does seem to enjoy syntax의 주어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알기 쉬운 형태로 나타내면 (91)과 같다.

(91) [_{IP} *He*_i does [_{VP} *t*_i seem [_{IP} *t*_i to [_{VP} *t*_i enjoy syntax]]]]].

조동사와 to 부정사, seem과 같은 상승술부는 자신의 주어에 의미역을 부

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대명사 he에 부여되는 유일한 의미역은 enjoy의 경험자역이다. 그리고, 이는 하나의 논항은 단지 하나의 의미역만을 지닌다는 의미역 기준에도 충족되는 상승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기성 원리로도 이러한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데, 즉, he가 자신의 격을 점검받기 위해 상승되어, does의 주어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he는 MP이론의 경제원리 중 하나인 최단 이동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속적인 순환에 의해 상승되어야만 한다.

3) 수동구문에서의 A-이동

지금까지 상승술부의 통사구조를 다루어 보았다. 이제부터는 수동구문의 통사구조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전통문법학자들은 다음의 (a) 문장들을 능동태, (b) 문장들을 수동태로 다루었다.



(92) a. *Hundreds of passers-by saw the attack.*

b. *The attack was seen by hundreds of passers-by.*

능동동사의 보충어로 사용되는 표현은 상응하는 수동구문에서 주어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the attack은 능동구문 (92a)에서는 saw의 보충어이지만, 수동구문 (92b)에서는 was seen by hundreds of passers-by의 주어이다. 그리고 이 수동구문의 by의 보충어는 상응하는 능동구문에서의 주어와 똑같은 의미역을 지닌다. 예를 들어, 능동구문 (92a)에서 hundreds of passers-by는 saw the attack의 주어로 작용하는데 반해, 수동구문 (92b)에서는 전치사 by의 보충어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경험자(experiencer)로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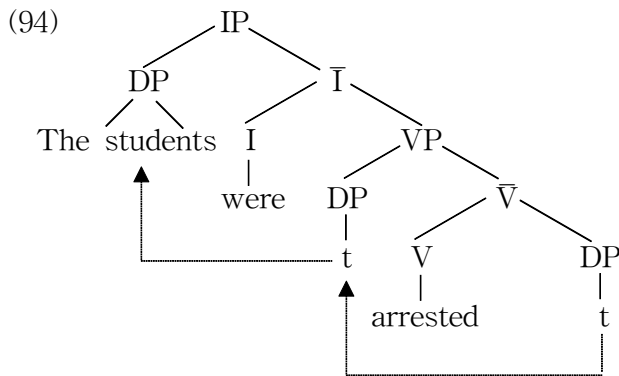
수동구문의 주어가 능동구문의 보충어와 같은 의미역을 갖는다는 증거는 그 둘이 관련된 논항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서 같은 제약을 지닌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93) a. *The students/?the camels/?!The flowers!/The ideas* were arrested.

b. They arrested *the students/?the camels/?!the flowers!/the ideas*.

(93)과 같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보편문법이 의미구조와 통사구조를 일관된 방법으로 관련시킨다고 가정한다면, 똑 같은 의미기능을 만족시키는 두 논항들은 통사구조상 반드시 같은 기저위치를 차지해야만 한다.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사이에 일관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가정은 소위 Baker(1988)의 일률성 의미역 할당 가설(Uniform Theta Assignment Hypothesis: UTAH)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UTAH에 따르면, 수동 주어는 능동 보충어와 똑 같은 위치에서 출발한다. (93a)의 수동 주어 *the students*는 대개 *arrest*의 보충어에 할당되는 대상(theme/patient) 의미역을 지닌다.

만약 이와 같다면, *the students*는 어떻게 조동사 *were*의 주어로 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94)에서처럼 DP *the students*가 연속적인 순환의 방법으로 상승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수동분사 *arrested*의 주어가 되고, 그런 다음 조동사 *were*의 주어가 된다는 것이다. 즉, *the students*가 *arrested*의 보충어로 시작해서 그것의 주어가 되는 수동화를 겪은 후에 마지막으로 *arrested*의 주어에서 *were*의 주어가 되는 상승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우선 유리양화사와 관련된 사실에서 제시할 수 있다.

(95) a. The students were *all* arrested.

b. *There* were several students arrested.

앞서 지적했듯이, 유리양화사는 이동된 주어의 흔적을 수식한다. 따라서 (95a)의 양화사 *all*은 이동된 DP the students의 spec-VP에 있는 흔적을 수식한다고 할 수 있다.

수동화된 논항이 수동 조동사의 주어가 되기 위해 이동하기 전에 먼저 수동 분사의 주어가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를 허사 구문에서 찾을 수 있다. (95b)의 양화사구 *several students*는 동사 *arrested*의 보충어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양화사구의 착지점은 어디인가? 수동분사 *arrested*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화사구는 일단 spec-VP로 상승하고, 다시 *arrested*의 지정어위치로 상승해서 주어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5b)의 *several students*의 인칭/수 자질들은 *were*에 유인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were*가 *several students*와 인칭이나 수가 일치하게 되

는 것이다.

그런데, 논항이동의 작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어떠한 제약이 수반되는지 지적해보자.

첫째, (94)와 같은 구조에서 보듯이, 논항이동은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이동한다. 이것은 흔적 이론(Trace Theory)과 결속에 대한 성분통어 조건(C-command Condition on Binding)을 따르기 때문이다. 흔적 이론은 이동된 구성성분은 이동되기 전 자리에 흔적을 남기며, 그 흔적은 이동된 자신의 선행사에 결속되어야만 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결속에 대한 성분통어 조건은 결속된 구성성분은 반드시 자신의 결속자, 즉 선행사에 의해 성분통어 되어야한다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IP [D *He*] [I' [I *is*] [VP [D *t*] [V' [V *thought*] [IP [D *t*] [I' [I *to*] [VP [D *t*] [V' [V *admire*] [D *her*]]]]]]]]]]]]에서 *admire*의 흔적 주어가 성분통어 되었고 *to*의 흔적 주어에 의해 결속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thought*의 흔적 주어에 의해, *is*의 주어 *he*에 의해 성분통어 되었고 결속되기 때문에 충족되고 있다.

둘째, (94)의 DP *the students*가 먼저 *arrested*의 주어/지정어가 되기 위해 이동하고,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were*의 주어/지정어가 되기 위해 이동하듯이, 논항이동은 왜 상위 지정어위치로의 이동과만 관련되며, 상위 보충어위치로의 이동과는 관련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보충어는 이동이 아닌 핵과의 합병에 의해서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며, 반면에 지정어위치는 합병과 이동 어느 쪽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IP [D *He*] [I' [I *is*] [VP [D *t*] [V' [V *thought*] [IP [D *t*] [I' [I *to*] [VP [D *t*] [V' [V *admire*] [D *her*]]]]]]]]]]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논항이동이 왜 연속적인 순환의 방법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도 보편문법

에서 찾을 수 있다. 보편문법 중에서도 특히 논항이동시 관련 구성성분을 바로 다음 상위의 주어위치로 이동시키는 최단 이동 원리(The Shortest Movement Principle)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해답으로는 통사상 술부는 주어를 가져야한다는 Rothstein(1995)의 술부 원리(Predication Principle)를 들 수 있는데, 이는 V-bar와 I-bar를 통사상 술부여서 도출과정에서 주어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속적인 순환성을 설명해준다. 넷째, 논항이동의 작용을 제약하는 또 다른 것은 의미역 기준에서 비롯된다. 이 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상승작용에서 뿐만 아니라, 수동화작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서, 수동동사의 보충어는 수동화될 수 있지만, 능동동사의 보충어는 수동화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the jewels는 수동구문 (96a)의 주어는 될 수 있지만 능동구문 (96b)의 주어는 될 수 없다.

(96) a. *The jewels* were stolen.

b. **The jewels* stole.

(96b)를 의도된 해석에 따라 분석하면, (97)과 같다.

(97) * $[[IP [DP \textit{The jewels}_i] [I' [I] [VP [DP \textit{t}_i] [V' [V \textit{stole}] [DP \textit{t}_i]]]]]]$.

(96a)의 DP *the jewels*는 동사 *stole*의 보충어로 시작해서 연속적인 순환의 방법으로 상승하여 처음엔 *stole*의 주어, 다음엔 INFL의 주어가 되었다. 그런데 왜 (96b)는 비문법적인가? 그것은 동사 *steal*이 agent 주어와 theme 보충어를 필요로 하는 2항 술어라는 점 때문이다. *stole*의 주어로 시작하는 DP *the jewels*는 *stole*의 대상(theme) 의미역을 할당받는다. 그러

나, spec-VP로 이동해서 stole의 주어가 되면, the jewels는 또한 동작주 (agent) 의미역을 할당받는다. 결국 어떠한 논항도 하나 이상의 의미역을 지닐 수 없다는 의미역 기준에 의해 (96b)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즉, 의미역 기준에 따라 능동동사는 수동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엔 수동문 (96a)의 도출과정을 살펴보자. DP the jewels가 stolen의 theme 보충어로 시작해서 연속적인 순환의 방법으로 상승하여 처음엔 수동분사 stolen의 주어가 되고 그런 다음 조동사 were의 주어가 된다고 하면, (96a)는 (98)과 같은 과정으로 도출된다.

(98) [IP [DP *The jewels*] [I' [I were] [VP [DP *t*] [V' [V stolen] [DP *t*]]]]].

그런데, (98)은 DP the jewels가 stolen의 theme 보충어에서 agent 주어로 이동하는 도출과정 때문에 의미역 기준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동분사는 자신의 주어에는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으며, 자신의 보충어에만 의미역을 부여한다. 수동분사가 자신의 주어에 의미역을 부가하지 않는다면, 의미역 기준은 (98)에서처럼 DP the jewels가 spec-VP에서 spec-IP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이제까지 수동화는 수동분사가 자신의 주어에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왜 수동화된 논항이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그 답변으로 우선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형태론적 요구를 이기적으로 만족시키는 이기성 원리를 들 수 있다. he는 주격, him은 목적격이듯이, 대명사 논항들은 내재적으로 격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격 자질은 도출과정에서 점점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은 도출과정상의 어느 한 단계에서 주격 대명사

가 주격 위치에 있을 때에만 이루어진다.

즉, 이기성이 수동화를 부추기게 되는 셈이다. 이기성 분석을 통해 구성성은 자신의 형태론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도만 이동할 뿐, 불필요한 이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99)가 뒷받침한다.

(99) a. *He* is said [to have lied to Parliament].

b. **He* is said [has lied to Parliament].

(99a)의 부정사절의 주어는 수동화가 가능한 반면, (99b)의 한정절의 주어는 수동화될 수 없다. 이 역시 이기성 원리가 그 해답을 제공해준다. 만약 위의 꺾쇠 안의 주어가 수동화되지 않고 제자리에 남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100) a. **It* is said [he to have lied to Parliament].

b. *It* is said [he has lied to Parliament].

대명사 *he*는 (100a)에서 제자리에 있을 수 없다. 만약 제자리에 남게 되면, 주격 자질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격점검과 같은 형태론적 요구사항들이 대명사 *he*를 수동화시키며, (99a)의 주격 위치로 이동시킨다. (99b)는 그 반대의 경우로, 여기서 *he*는 한정 조동사 *has*의 주어로서 이미 주격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격 자질은 그 자리에서 점검될 수 있다. 점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b)의 *he*는 또 다른 주격 위치로 이동될 필요가 없고, 이동을 겪은 (99b)의 비문법성이 설명가능하다.

VI. 결론

NP-이동은 WH-이동, Head-이동과 더불어 α -이동으로 통합되면서, 변형생성문법의 큰 논제가 되어왔다. 본 논문은 Chomsky의 GB이론을 중심으로 NP-이동 현상을 연구하였다. NP-이동은 영어의 상승구문, 수동구문, 능격구문 그리고 중립구문의 통사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상승구문에서의 NP-이동의 이론적 설정근거를 재귀사 해석과 일치 현상, 관용구 표현에서 찾아보았으며, 수동구문에서의 NP-이동의 이론적 설정근거를 하위범주화, 관용구 표현, 선택 제약, 격배정 문제, 의미역 관계에서 찾아보았다. 그리고, 능격구문과 중립구문 내의 NP 요소의 이동은 D-구조의 주어위치에 공명사구(NP-e)를 설정해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능격구문과 중립구문에서 NP-이동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절에서 또 다른 절로의 이동의 예가 없기 때문에 상승구문과 수동구문의 경우처럼 설득력을 지니지는 못한다.

논항위치에서 논항위치로 이동하는 모든 이동을 NP-이동이라 하는데, 이러한 NP-이동은 격배정을 받지 못하는 의미역 위치에서 격배정이 되는 비의미역 위치로만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각 논항은 하나의 의미역만 받으며, 각 의미역은 하나의 논항에만 할당된다’는 의미역 기준과 ‘모든 음성적 내용을 지닌 명사구는 격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격여과 장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동된 성분은 자신이 이동해 나온 위치에 동지표되는 공범주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흔적은 이동된 요소의 문법적 자질로 구성되는데 흔적에 남겨지는 문법적 자질에는 그 이동된 요소의 지표가 반드시 포함된다.

NP-이동으로 인해 비문법적인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안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NP 요소가 위치할 구조적 환경을 명시한 시제문 조건과 명시주어 조건, 구성소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한 하위인접 조건, 시제문 조건과 명시주어 조건을 통합한 불투명 조건, 하위인접 조건을 수정한 장벽이론과 공범주 원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NP-이동의 제약들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뒤따랐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Chomsky(1993)는 모든 변형 규칙을 경제원리로 설명한 MP이론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원리 중 이동과 관련된 '최단 연결 원리', '최소 단계 원리', '이기성 원리'를 살펴보고, NP-이동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Baltin(1995)이 제시한 VP-내부 주어 가설을 통해 모든 문장의 주어가 이동을 겪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설을 통해서 There 구문, 유리양화사, spec-IP에 위치하는 PRO 설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접어화, 절 관용구 사이에 위치하는 조동사 등의 통사구조를 설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고태홍(1997), “NP-이동”, 「언어학연구」, 제2호, 제주: 제주언어학회.
- 김동석(1995), 「현대문법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부자(1997), “MP이론에서의 이동구문에 대한 분석”, 「영어영문학」, 제 43권, 1호.
- 김은영(1999), “名詞句와 疑問詞句의 移動에 관한 制約”, 碩士學位論文,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나병모(1999), “최소주의와 최소구구조”, 「운암 이병주박사 정년 기념 논문집」, 정현사.
- 노관식(2000), “疑問詞句와 名詞句 移動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길봉(1993), “NP-movement와 WH-movement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 박상수(1994), 「영어통사론」, 서울: 형설출판사.
- 박승혁(1995), “문법항의 구구조 자격 결정과 X[-proj,+max]의 존재”, 「언어」, 제20권 1호.
- 박호준(1998), “영어의 NP-이동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정미(1995), “영어의 명사구 이동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양동휘(1994), “최소이론에서 필수이론으로”, 「현대언어학 지금 어디로」, 서울: 한신문화사.
- 우수향(1996), “二重目的語構文의 最小理論的 接近”, 碩士學位論文, 한양대학교 대학원.
- 유연철(1995), “이중목적어구문의 MP이론적 분석”,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명순(1993), “WH-이동과 NP-이동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민·배영남 編(1982), 「언어학사전」, 한신문화사.
- 정석호(1999), “A COMPARISON OF GB AND MP WITH RESPECT TO NP-MOVEMENT AND HEAD-MOVEMENT”, 碩士學位論文, 호서대학교 대학원.
- 최병달(1985), “英語 NP-MOVEMENT의 變形文法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Baker, M.(1988), *Incorporation*, Univ. of Chicago Press.
- Baltin, M.(1995), “Floating quantifiers, PRO and prediction”, *Linguistic Inquiry*, 26.
- Burzio, L.(1986), *Italian Syntax : A Government-Binding Approach*, Dordrecht: Reidel.
- Chomsky, N.(1973), “Conditions on Transformations”, in Anderson & Kiparsky, eds.(1973),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_____ (1977), “On Wh-Movement”, in Culicover, Wasow and Akmajian eds.(1977), *Formal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 _____ (1981a),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_____ (1981b), *On the Representation of Form and Function*, *The Linguistic Review* 1.
- _____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_____ (1986b), *Barriers*, Cambridge, Mass.: MIT Press.
- _____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1*, Cambridge, Mass.: MIT Press.

- _____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5, Cambridge, Mass.: MIT Press.
- Culicover, P. W.(1982),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 Lyons, J.(1981), *Language and Linguistics :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Postal, P. M.(1971), *Cross-Over Phenomena*,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_____ (1974), *On Raising : One Rule of English Grammar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 Radford, A.(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_____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_____ (1997), *Syntax : A minimalist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Ross, J. R.(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Ph. D. Dissertation*, MIT.
- Rothstein, S.D.(1995), "Pleonastics and the interpretation of pronouns", *Linguistic Inquiry*, 26.
- Stowell, T.(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Ph. D. Dissertation*, MIT.

<Abstract>

A Study on NP-Movement in English*

Moon, Eun-suk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Tae-hong

This thesis focuses on Noun Phrase Movement which often occurs in English.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wo-fold; one is to examine a few structures which the NP-Movement rule applies to, and the other is to find out some necessary constraints and conditions against the sentence overgeneration of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To fulfill this purpose, first of all, I examined four kinds of structures which the NP-Movement rule applies to - raising structures, passive structures, ergative structures, and middle structures. I could find empirical evidences in support of NP-Movement in syntactic structures such as reflexivization, agreement, idiom chunks, subcategorization, and selection restriction related to NP-Movement in raising structures. Theoretical backgrounds of NP-Movement in passive structures contain subcategorization, idiom chunks, and selec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restriction, and NP-Movement in ergative and middle structures was explained by positing a null category on the subject positions of their Deep Structures. However, there are no instances of long NP-Movement(from one clause to another) in ergative and middle structures. Thus, NP-Movement in those structures doesn't get explanatory motivation. Moreover, I pointed out that Noun Phrases have properties to move from θ -position to $\bar{\theta}$ -position in order to satisfy θ -Criterion, and that they have properties to move from case-unmarked position to case-marked position in order to satisfy Case Filter. According to θ -Criterion, each argument bears one and only one θ -role, and each θ -role is assigned to one and only one argument. Based on the Case Filter, any sentence containing an overt NP is ill-formed if the NP is not case-marked. While I studied NP-Movement, I could confirm that the moved NP constituent left its trace behind and was coindexed with the trace. Besides, I accounted for many constraints and conditions which would effectively block overgeneration of sentences by "Move NP". They are as follows: Tensed-S Condition, Specified Subject Condition, Subjacency Condition, Opacity Condition, and Barriers. Chomsky(1993) proposed Minimalist Program in his recent papers, integrated the conditions mentioned above into the Economy Principle of Minimal Program, and explained NP-Movement with its subordinate principles. For example, while NP-Movement in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was dealt with by Super-raising, θ -Criterion, Case Theory, Tensed-S Condition, and Specified Subject Condition, etc., NP-Movement in Minimalist Program was dealt with by The Shortest Movement Principle, The Fewest Steps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Greed, etc. Moreover, I could explain NP-Movement more effectively than before under Baltin(1995)'s persuasive VP-Internal Hypothesis.